

上猯洞遺蹟 調査報告(I)

1994

西歸浦市・濟州大學校博物館

목 차

I. 머리말	9
II. 역사적 배경	10
III. 지표조사	13
1. 유물산포지	13
2. 바위그늘집자리	15
3. 고찰	20
IV.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26
1. 시굴조사	26
1) 개요	26
2) 조사방법 및 경과	26
3) 조사내용 - Trench와 Testpit조사	29
4) 출토유물	37
5) 고찰	41
2. 발굴조사	51
1) 개요	51
2) 조사방법 및 경과	51
3) 조사내용	51
4) 출토유물	55
5) 고찰	64
V. 맺음말	79

도 면 목 차

[도면 1] 상예동유적 위치도	11
[도면 2] 유적내 고인돌·집자리·용천수 분포도	12
[도면 3] 바위그늘집자리(1) 평·단면도	16
[도면 4]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18
[도면 5] 바위그늘집자리·유물산포지 수습유물	19
[도면 6] 시굴조사·발굴조사 구획도	27
[도면 7] 시굴조사 B지구 pit평면도	36
[도면 8] 시굴조사 출토유물(1)	39
[도면 9] 시굴조사 출토유물(2)	40
[도면 10] 발굴조사 적석시설물 평·단면도	53
[도면 11] 발굴조사 출토유물(1)	57
[도면 12] 발굴조사 출토유물(2)	60
[도면 13] 발굴조사 출토유물(3)	61
[도면 14] 발굴조사 출토유물(4)	62
[도면 15] 발굴조사 출토유물(5)	63
[도면 16] 발굴조사 출토유물(6)	66

사 진 목 차

[사진 1] 유물산포지 전경	21
[사진 2] 적석시설물	22
[사진 3] 바위그늘집자리·고인돌	23

[사진 4] 상예동유물산포지 수습유물	24
[사진 5] 바위그늘집자리·적석유구 출토유물	25
[사진 6] 시굴조사대상지 전경	42
[사진 7] 시굴조사대상지 전경·조사광경	43
[사진 8] 시굴조사 pit전경	44
[사진 9] 시굴조사구역내 B지구 pit노출상태	45
[사진 10] 시굴조사구역내 C지구조사	46
[사진 11] D지구조사	47
[사진 12] D지구 단애면조사	48
[사진 13] 시굴조사구역내 출토유물	49
[사진 14] 시굴조사구역내 출토유물	50
[사진 15] 발굴조사광경	67
[사진 16] 적석시설물	68
[사진 17] 적석시설물 적석상태 세부	69
[사진 18] 구덩이 노출상태	70
[사진 19] 구덩이 내부노출상태	71
[사진 20] Test pit·층위상태	72
[사진 21] 발굴조사 출토유물(1)	73
[사진 22] 발굴조사 출토유물(2)	74
[사진 23] 발굴조사 출토유물(3)	75
[사진 24] 발굴조사 출토유물(4)	76
[사진 25] 발굴조사 출토유물(5)	77
[사진 26] 발굴조사 출토유물(6)	78

I. 머리말

이 유적은 1985년에 보고된 유적이다¹⁾. 당시 바위그늘집자리와 대단위 유물산포지가 하천서벽 경사면에 자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차례의 유적보고가 있어 왔으며, 인근 성천포(중문관광단지 서편 해안마을)유적과 색달동고인돌, 창천리유물산포지·고인돌유적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었고 탐라시대후기(A.D. 500~1105)에 해당하는 유물이 이 유적에 집중되어 있음도 조사되었다. 최근 상예동 하류에 자리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실시계획이 입안되고 초기단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향 조사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조사가 요구되었다.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정밀지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본 박물관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구역서편(상예동 941번지) 발 단애면 경계부분에서 인공적인 적석렬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의 기간과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표조사 : 1994. 5.15~10.30
2. 시굴조사 : 1994. 5. 9~ 6.15
3. 발굴조사 : 1994. 10. 2~10.20
4. 소요예산 : 16,000,000원
5. 조사단구성

조사단장 : 이청규(제주대학교박물관장)

조 사 원 : 강창화(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고재원(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담당 : 박경홍(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조원 : 김경주, 방문배, 박용범, 고정민, 오연숙(제주대학교사학과 4年),

김종찬(제주대학교 사학과 3年)

이 보고서는 이청규의 감수아래 강창화가 작성하였다. 도면은 오연숙, 김경주, 방문배, 박용범, 김종찬이 맡아 하였고, 제4장의 유물부분은 고재원이 맡아 서술하였다. 문헌부분은 강창용이 협조하였다.

1)李清圭, 1985,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遺蹟調查報告2輯, pp. 32~35.

II. 역사적 배경

이 마을의 역사는 고려말 충렬왕 26년(1300) 이전에 존속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다음의 여타 문헌에서 참조할 수 있다.

『耽羅志』²⁾에 따르면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東·西道로 나누고 縣村을 설치하였는데, 그 현촌은 貴川·高內·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狐村·洪爐·猊來·山房·遮歸 등지라」하여 14개의 현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增補文獻備考』에는 『耽羅志』의 호촌·산방·차귀의 3개 현촌 대신에 兎山·狐兒를 넣어 13개 현촌으로 기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그런데 김정호의 『大東地志』를 보면, 「호아는 일명 호촌이라 한다」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홍로·토산·예래·산방·차귀 등 6개현은 모두 충렬왕 2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⁴⁾. 따라서 『탐라지』와 『증보문헌비고』의 차이는 漏落에 의한 착오라고 생각되며, 결국 충렬왕 26년에 설치된 현촌은 모두 15개였다.

그리고 『탐라지』에는 현촌의 기록에 있어, 각 현촌의 규모는 大村에는 戶長이 3인·城上이 1인, 中村에는 戶長 3인, 小村에는 戶長 1인을 두었다고 했다.

舊說에 따르면, 신라에서 高厚를 봉할 때 村을 두었고, 고려 의종 때에 또 나누어 縣을 만들었으며, 원종 때 삼별초를 평정하고 통합하여 州로 하였고 이때(충렬왕 26년)에 이르러 또 縣村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된 연대는 확실치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 때의 촌의 규모는 대략 10戶 정도의 혈연집단이 거주하는 자연촌락이며⁵⁾, 이들이 차차 속현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여겨진다. 즉 탐라현과 『탐라지』등에 보이는 14개 현촌은 주현과 속현⁶⁾의 관계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주도에 편제되었던 14개 현촌은 주현인 탐라현(治所는 현 제주시인 대촌현)의 관할 하에 있었던 속현이며, 이들은 크게 대·중·소로 나누고 호장 등을 두어서 관리했던 것이다.

제주도를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세 행정구역으로 처음 나눈 것은 조선조 태종 16년(1416)의 일이다. 그리고 이들 현촌들은 세 고을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三邑에 분속되었다.

2) 『耽羅志』 建置 沿革條.

3) 『增補文獻備考』 郡置 沿革 全羅道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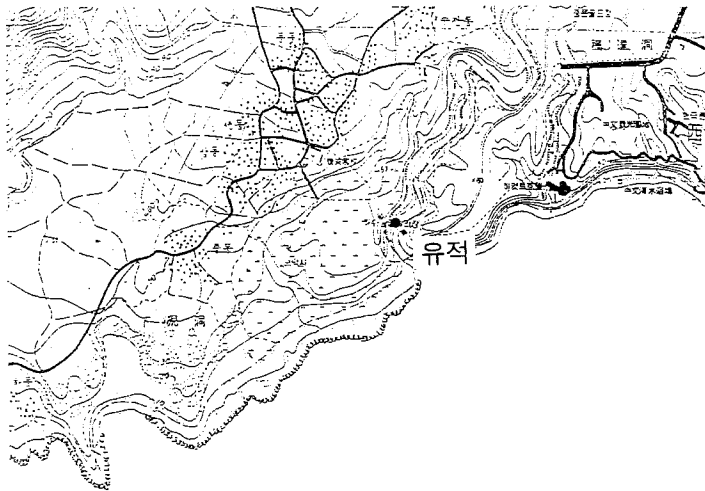
4) 『大東地志』 旌義·大靜 古跡條.

5) 이기백, 『한국사신론』, p.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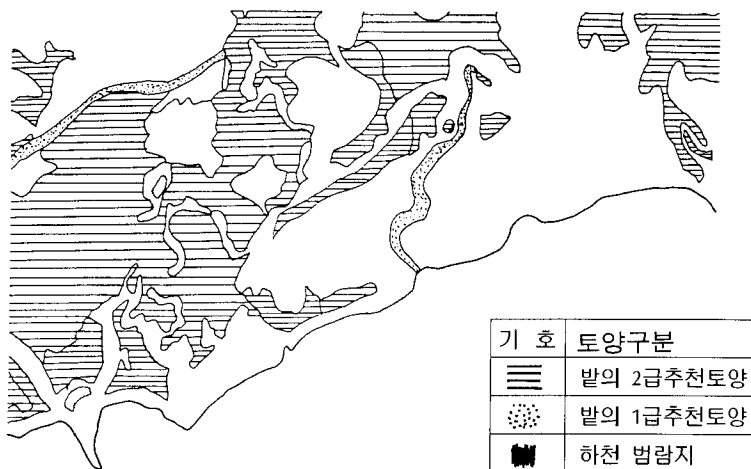
6) 고려시대에는 초기에 현령을 두던 현(주현)과 중앙에서 지방관을 전혀 파견하지 않던 속현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었다. 현령이 배치된 현은 보다 상위의 목 또는 도호부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실제 행정은 어느 정도 현령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속현은 지방관이 배치된 다른 지방 관청에 예속되어 있었다. 예종 때부터는 이러한 속현에도 監務라는 지방관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떤 속현은 조선조에 이르러 비로소 감무를 두게 된 곳도 있다.

즉 제주목의 대촌현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東道の 新村縣·咸德縣·金寧縣, 西道の 貴川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등을 귀속시키고, 旌義縣에는 兎山縣·狐兒縣·洪爐縣을, 그리고 大靜縣에는 猓來縣과 遮歸縣을 각각 소속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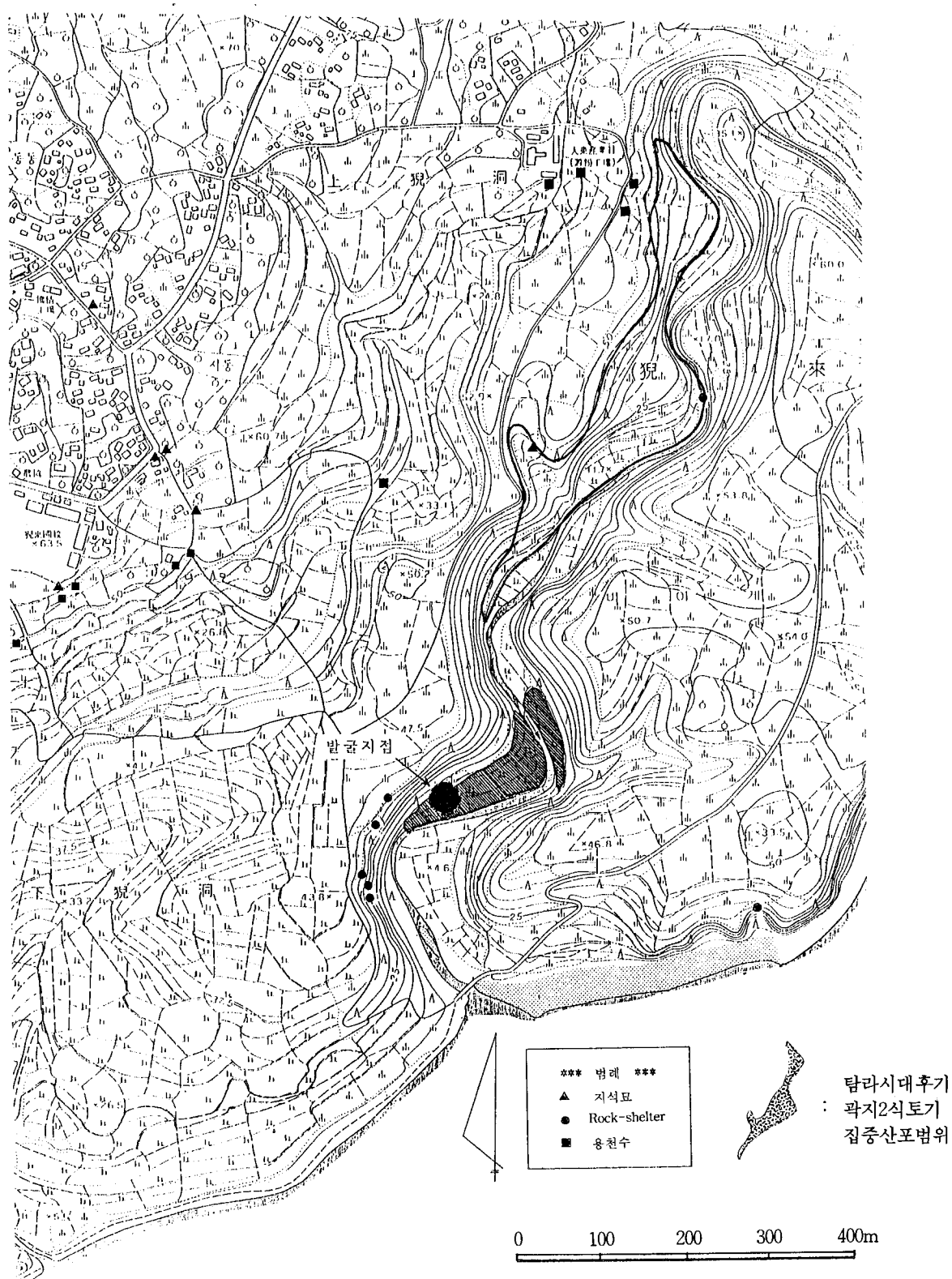
이 마을이 上·下猓里로 분리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747~1759년 사이로 보인다. 그 후 上猓 2리(조사대상마을)의 분리는 1920년께 이뤄졌다고 전한다. 또한 1873년에는 大坪里가 이 마을에서 떨어져 나갔다.



도면 1. 상예동유적 위치도



* 주변유적 토양도



도면 2. 유적내 고인돌·집자리·용천수 분포도

III. 지표조사

1. 유물산포지

1) 유적(도면 1~2 : 사진 1~2)

유적은 서귀포에서 서편으로 15km 떨어진 중문관광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상예동과 색달동을 경계짓고 흘러가는 중문한천이 있고 이 하천은 하상절벽이 매우 발달된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에서 북으로 1.5km 지점에서 많은 양의 용천수가 솟아나 영구유수천을 떠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하천의 서편 경사면과 윗대지에 모두 유물산포지가 확인된다. 경사면에서 확인되는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상예동 1501번지에서 상예동 940번지 일대이다.

특히 유물이 집중된 곳은 한천의 하천계곡이 지그재그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몇해전만 해도 회귀어종(廻歸魚種)인 은어가 다량으로 서식해 왔으며 이들 어종을 대상으로 한 고기잡이도 성행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하천하류 벽부분에서 총 6개의 바위그늘집자리(Rock-shelter)와 적석유구 2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절벽을 따라 2개소의 용천지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문한천하류(현 종말처리장)에서 서귀포시에 이르는 해안절벽(단구)이 매우 발달하여 이 지점 역시 동굴유적과 바위그늘유적이 산재해 있다. 1991년도의 지표조사시 발 경계부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적석유구가 있다. 하천절벽위의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단한 적석유구 조사만 실시하여 정확한 유구의 해석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비교적 정연한 형태의 적석시설물로 파악된다(도면 3 : 사진 2). 길이 약 12.3m, 높이 1.2m 가량 되는 규모로 단면조사 결과 표토(Ⅰ)-흑회색점질토(Ⅱ)-흑갈색점토층(Ⅲ)으로 크게 3개의 층위로 구분되었다. 적석유구는 Ⅱ·Ⅲ층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유물은 주로 Ⅱ층에서 출토되었다. 광지 Ⅱ식 심발형토기가 대부분이고, 특징적인 유물은 토기뚜껑편 1점이 있다(도면 5-① : 사진 6-③).

현재 마을이 자리한 유물산포지 대지 서편에서 고인돌이 확인된다. 지석이 보이지 않고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로 차후 2차 조사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사진 2-⑥).

덧붙여 이 일대는 제주도 선사유적의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동 유적의 동편 2km

지점에 성천포유적과 서편 3km지점에 대평리 유물산포지와 지석묘 2기, 북편 1km지점에 색달동 지석묘 1기가 확인된다.

2) 유물(도면 4 : 사진 5)

가) 적갈색토기저부(도면 4-② ; 사진 5-②~③)

① 적갈색토기 저부편으로 그릇내면은 흑색을 띠고있다. 그릇바닥과 동체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을 볼 수가 있다. 동체는 성형시 손누름수법과 물손질수법을 사용하였다. 태토는 거칠고 굵은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높이는 7.2cm이고, 그릇바닥의 두께는 0.8cm이며, 동체부분의 두께는 1.2cm이다.

② 적갈색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를 따로 제작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릇바닥의 안쪽면에는 꺾기수법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며, 태토는 거칠고,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높이는 4.8cm이고, 두께는 바닥이 1.2cm이며, 동체는 1.8cm이다.

나) 방추차(도면 4-⑥,⑦ : 사진 4-③,④)

① 주판알 모양의 토제 방추차로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약간 거칠고 크고작은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직경은 4.1cm이고, 두께는 2.3cm이며, 구멍의 지름은 0.7cm이다.

② 토제방추차로 한쪽면은 주판알 모양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면은 평평하게 제작되었다. 일부분이 파손되었고 태토는 매끄러우며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직경은 3.8cm이고, 두께는 1.9cm이며, 구멍의 지름은 0.5cm이다.

다) 석기(도면 4 : 사진 4)

① 양쪽측면이 홈이 패인 장타원형의 석기로 손에 잡기 편리하게 하거나, 끈을 묶기 위해 홈을 만들어 놓은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윗면과 아랫면에 타격면으로 사용했던 마모된 흔적이 있다. 또한 앞뒷면에도 홈이 패여있어 홈들의 용도로도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의 길이는 13.6cm이고, 폭은 4.8cm이다(도면 4-⑧ ; 사진 4-⑤).

② 양쪽측면이 패인 장타원형의 석기로 손으로 잡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윗면과 아랫면에 타격면으로 사용했던 마모된 흔적이 있으며, 앞면과 뒷면의 중앙부분에 얇게 홈이 패여져 있는 것은 대체로 앞서 서술한 석기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축의 길이는 13.9cm이고, 폭은 2.8cm이다(도면 4-⑨ ; 사진 4-⑥).

③ 양쪽측면에 손으로 잡기에 편리하도록 패여져 있는 석기로 윗면과 아랫면에 역

시 타격면으로 사용했던 마모된 흔적이 있다. 반면에 앞에서 서술한 석기와 다른점은 앞면과 뒷면에 흠이 패여져 있지 않다. 위에서 서술한 석기들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축의 길이는 10.1cm이고, 폭은 4.5cm이다(도면 4-⑩ ; 사진 4-⑧).

④ 제주도 현무암제의 갈들로 한쪽면을 갈아서 사용하였다.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윗면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손으로 잡기에 편리하다. 현재 길이는 12.3cm이고, 앞면(평평한면)의 폭은 9.3cm이고, 두께는 6.2cm이다(도면 4-⑪ ; 사진 4-⑦).

라) 마제석부(도면 5-⑦)

상예동 바위그늘집자리(1)에서 하천상류쪽 약 1.2km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 석부는 합인석부로 날부분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날부분에 집중적인 마연을 가하여 반들거린다. 길이 12.1cm, 폭 5.4cm, 두께 3.9cm이다.

2. 바위그늘집자리(Rock-shelter)

1) 바위그늘집자리(1)(도면 3 : 사진 3-②~③)

가) 유구(도면 3 : 사진 3-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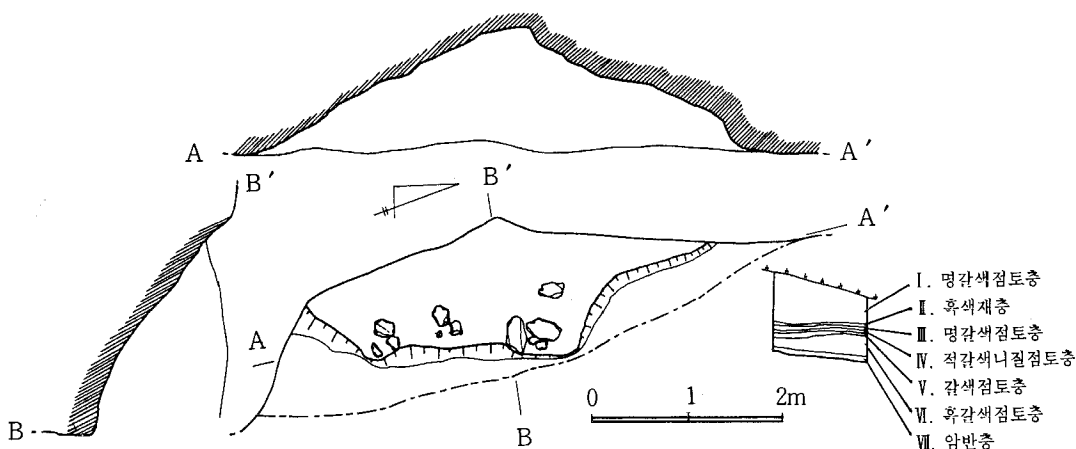
유적이 형성된 지점은 하천이 지그재그형으로 꺾이는 부분인 절벽 밑이다. 현재에도 절벽면이 계속 낙석되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원래는 바위그늘의 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컸으리라 생각된다.

바위그늘의 앞면 천정높이는 1.5m,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깊이는 2.2m, 앞면의 넓이는 3.5m이다. 바닥의 층위는 명갈색점토층(1층)-흑색재층(2층)-명갈색점토층(3층)-적갈색니질점토층(4층)-갈색점토층(5층)-흑갈색점토층(6층)-암반(7층)으로 나타나 여러번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전술한 층위중 두께 5cm미만의 목탄층(재층)은 그러한 흔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암반상면에 놓인 인공적인 할석이 몇군데에서 확인되었는데 그늘 중앙에서 확인되는 판석과 할석 3매는 노지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층~4층부분에서 인골편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 집자리가 폐쇄된 후 무덤자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나) 유물(도면 4-①, 5-②~⑥)

(1) 적갈색 심발형토기(도면 4-① ; 사진 5-②)

이 토기는 1985년 발견하여 매장문화재로 신고한 유물이다. 이 토기는 전체적인 기형은 深鉢形을 이루며, 입지름 10.7cm, 바닥지름 12.7cm, 높이 118.1cm, 평균두께 0.7cm이다.



도면 3. 바위그늘집자리(1) 평·단면도

토기제작수법상 특징적인 것은 동체와 바닥을 따로 만들어 동체부와 접합한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광지패층 4지구에서 출토되는 광지 2식토기와 동일한 것이다.

(2)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 5-③~⑤ ; 사진 5-①)

① 적갈색토기 구연부편으로 성형시 물손질수법을 사용하였다. 물손질 수법으로 문지르면서 평평하게 제작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고른편이며, 굵은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복원입지름은 15cm이고, 두께는 1.0cm이다.

② 적갈색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는 물손질수법으로 처리하였다. 태토는 외벽이 내벽에 비해 고른편이며, 외벽은 물레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물손질수법도 군데군데서 보인다. 보강제로는 크고작은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복원입지름은 12cm이고, 두께는 0.7cm이다.

③ 적갈색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는 대칼과 같은 도구로 깎기수법을 사용하였다. 구연에서 살짝 외반되는 전형적인 광지 2식토기이다. 태토는 고른편이며, 보강제는 대체로 자갈한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복원입지름은 15cm이고, 두께는 0.5cm이다.

(3) 적갈색토기 저부(도면 5-⑥ ; 사진 5-①)

적갈색토기 평저부편으로 태토는 비교적 거친편이고, 보강제로는 자갈한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내외벽 모두 솔질수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높이는 3.4cm이고, 두께는 0.6cm이다.

(4) 적갈색토기 뚜껑(도면 5-② ; 사진 5-①)

적갈색토기 뚜껑편으로 태토는 약간 거칠고 크고 작은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성형시 물손질수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높이는 3.5cm이고, 두께는 0.6cm이다.

2)바위그늘집자리(2)~(6)(사진 : 3-①)

공사지역내 바위그늘집자리는 모두 5군데가 확인되었다. 바위그늘집자리는 하천북편 절벽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절벽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과는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바위그늘주거지들은 20~60m가량의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 집자리는 비교적 소규모의 것들로 그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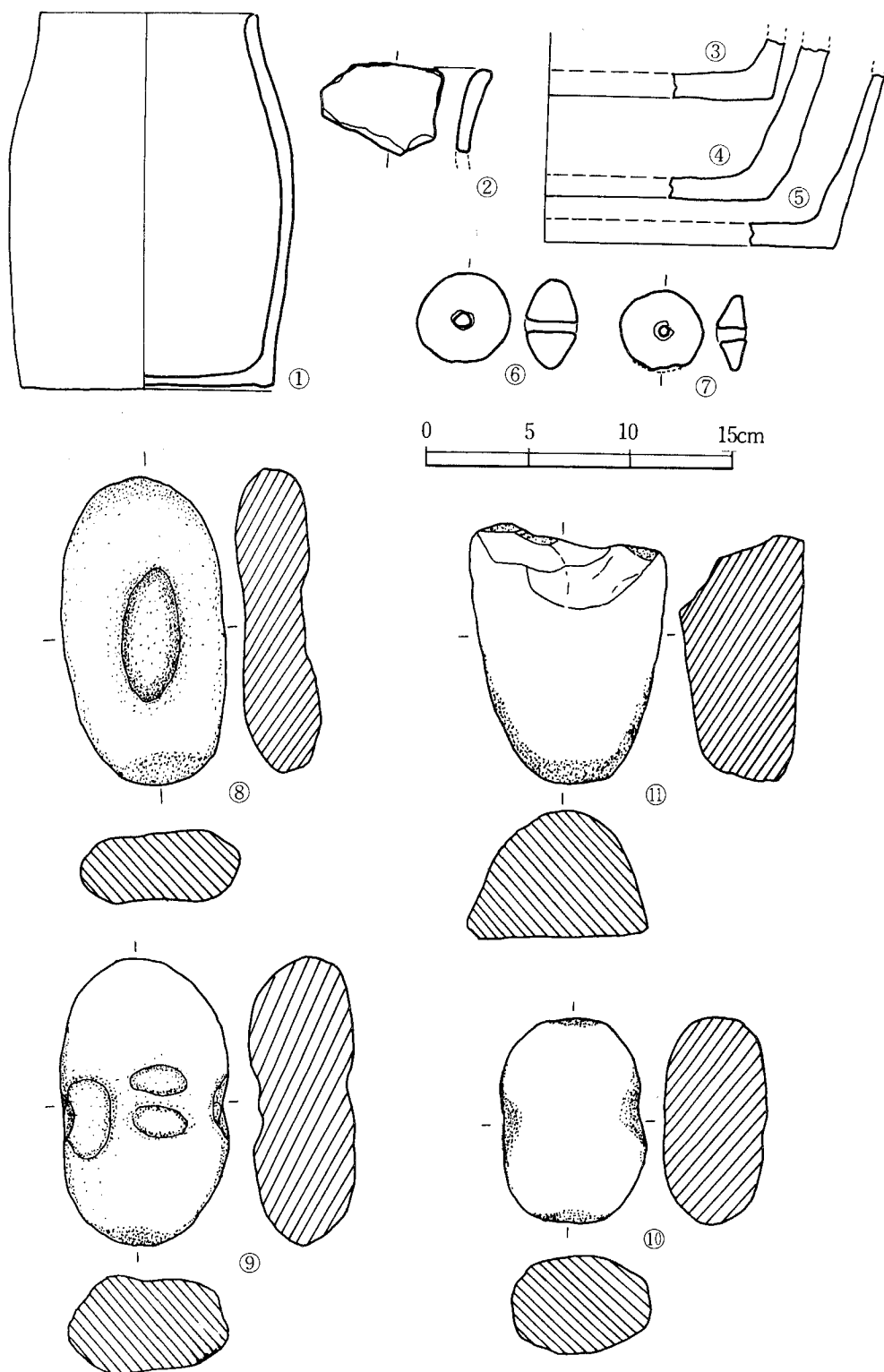
유 적 명	정면높이	굴길이	퇴적층	정면넓이	비 고
바위그늘집자리 2	1.5m	1.2m	120cm	2m(?)	
바위그늘집자리 3	2.1m	1.3m	120cm	3m(?)	
바위그늘집자리 4	1.0m	2.0m	70cm	3.2m	토기편 출토
바위그늘집자리 5	2.2m	1.0m	130cm	?	
바위그늘집자리 6	1.2m	1.0m	130cm	?	

유물이 지표상에 노출된 곳은 1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 퇴적층이 비교적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유물확인은 불가능하였다. 차후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물포함층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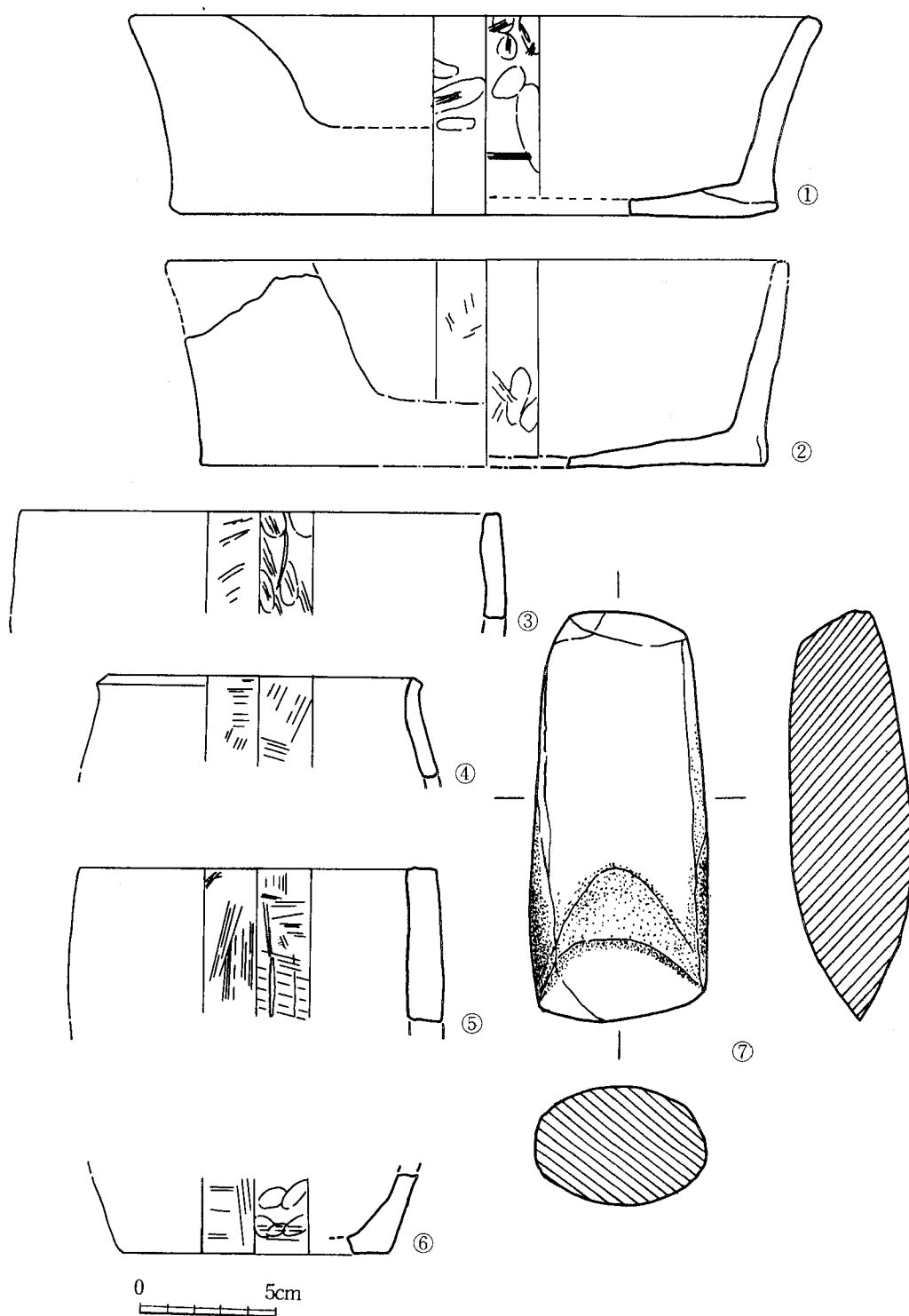
확인된 유물은 바위그늘집자리(4)에서 발견된 적갈색토기로 두께 0.8cm가량되는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비교적 두터운 현무암 알갱이들이 혼입되어 있으며 토기표면은 비교적 거친편이다. 그러나 토기겉면은 손질흔적이 조금씩 보인다.

3) 동굴입구집자리(사진 : 3-⑤)

이 유적은 중문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으나, 현재의 행정구역은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자리한 지점은 해안 절벽 중턱에 있다. 예래동과 색달동의 경계를 이루는 한천 하류에서 동쪽해안 절벽을 따라 약 200m 지점이다. 이 해안 절벽은 크게 서귀포시 서쪽에서부터 안덕면 화순리로 이어지는 제주도 남부 해안절벽의 일부이다. 동굴이 자리한 지점의 절벽 높이는 25m이다. 유적의 트인 방향은 남쪽이며 동굴입구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도면 4.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도면 5. 바위그늘집자리·유물산포지 수습유물

규모는 대략 5평 남짓이다. 동굴전체의 규모는 입구 동서길이 3.5m, 높이 3.7m이며 안쪽까지의 길이는 21m 이다. 동굴주거지의 퇴적상태와 유물포함층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시굴(test pit)조사를 했다. 시굴구덩이는 입구에서 정남향으로 3m 떨어져 1x1m크기로 구획하였다. 시굴구덩이 내부 층위는 1m 깊이로 잔자갈과 흑갈색부식토로 채워진 단일 층위였다. 유물은 이 자갈과 함께 출토된다.바닥은 잡석을 인위적으로 깎 것으로 여겨진다. 입구쪽이 안쪽보다 퇴적층이 깊다.

출토유물은 10점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출토토기편은 광지조개무지 2지구에서 발견된 적갈색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기 구연부의 모양은 입넓은 항아리 일종으로 어깨부분에서 급격히 벌어지는 것들이다. 한점의 토기만이 이들 적갈색토기보다 시대가 멀어진다. 이 토기는 광지조개무지 4지구에서 출토되는 심발형 모양의 적갈색토기 속성을 구비한 것으로 저부편이다. 토기바닥과 몸통을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뚜렷하다.바닥 두께도 1cm미만이다.

3. 고찰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광지 1식 壺形토기와 광지 2식 深鉢形토기이다. 광지 1식 壺形토기는 광지패총 2지구 3,4층과 5지구에서 다량으로 확인되며⁷⁾ 광지 2식 深鉢形 토기는 광지패총 4지구에서 출토된다⁸⁾. 광지 1식 속성의 토기는 용수조건이 만족되는 제주도 해안 지역 어디에나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의 거주는 바람을 막아주고 식량 취득에 용이하며 식수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입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데 그 지점은 유물이 다량으로 수습되는 지점과 구릉지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거형태는 육지지방에서 발견되는 견고한 半堅穴움집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막바로 움집 유형을 만들고 거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유물이 모두 표토에서 수습되며 바로 인근에 바람과 비를 자연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바위그늘주거지의 존재로 알수 있다⁹⁾. 여하튼 지표조사를 통해 상례동마을 하천에 위치한 예래 ‘한천’절벽부분과 그 상면대지는 제주도 탐라시대에 번창한 취락을 형성했던 곳으로 판단된다. 대략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소속 시기는 광지 1식토기단계(A. D 0~500), 광지 2식토기단계(A.D. 500~1105)로 설정할 수 있다.

7) 李自圭·李清圭, 1985,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1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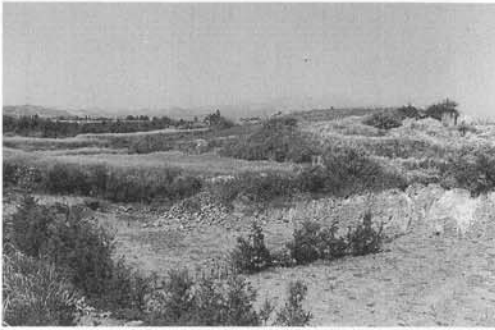
8) 李清圭·高才元, 1989, 『濟州郭支里遺蹟 緊急發掘簡略報告』, 『韓國上古史學專報』2集, p. 207~212.

9) 李清圭·康昌和, 1987, 『濟州道 地方의 先史文化와 동굴·바위그늘집자리』,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Vol. No.1.



- | | |
|---------|----------|
| ① 대지 | ④ 하천 I |
| ② 습지 I | ⑤ 하천 II |
| ③ 습지 II | ⑥ 해안과 하류 |

사진 1. 유물산포지 전경



① 유적원경



② 유구전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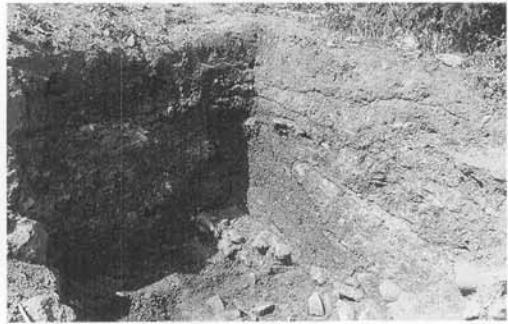
③ 유구전경(서에서)



④ 내부층위(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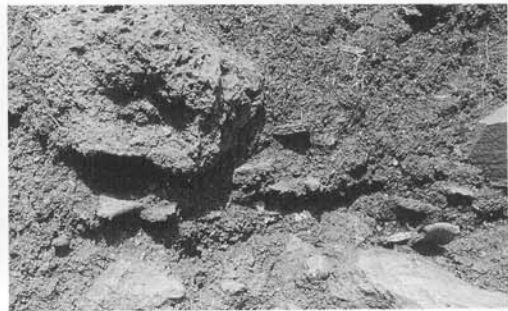
⑤ 내부층위(동벽)



⑥ 층위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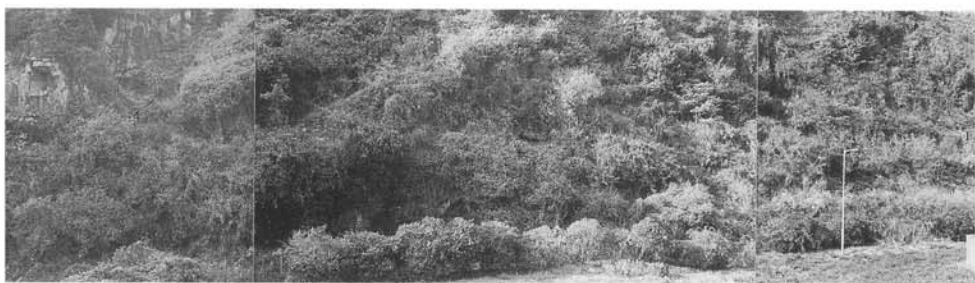


⑦ 층위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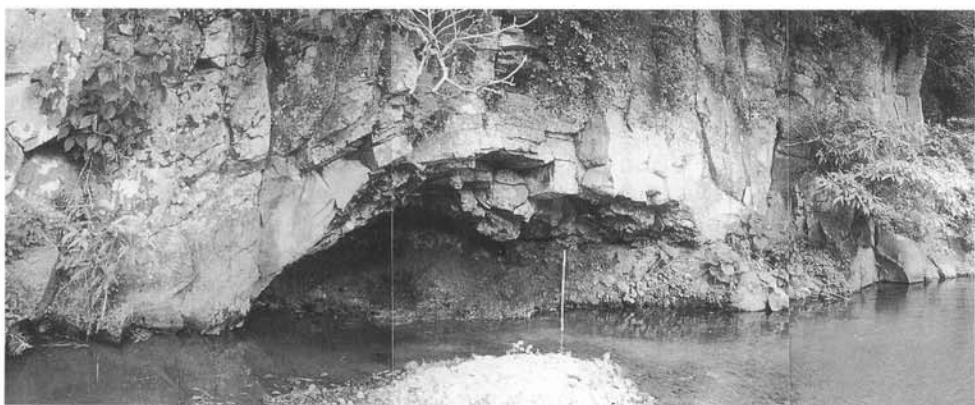


⑧ 유물출토광경

사진 2. 적석시설물



① 바위그늘집자리(2)~(6)



② 바위그늘집자리(1)



③ 바위그늘집자리(1)의 세부



④ 바위그늘집자리



⑤ 바위그늘집자리



⑥ 고인돌조사광경

사진 3. 바위그늘집자리·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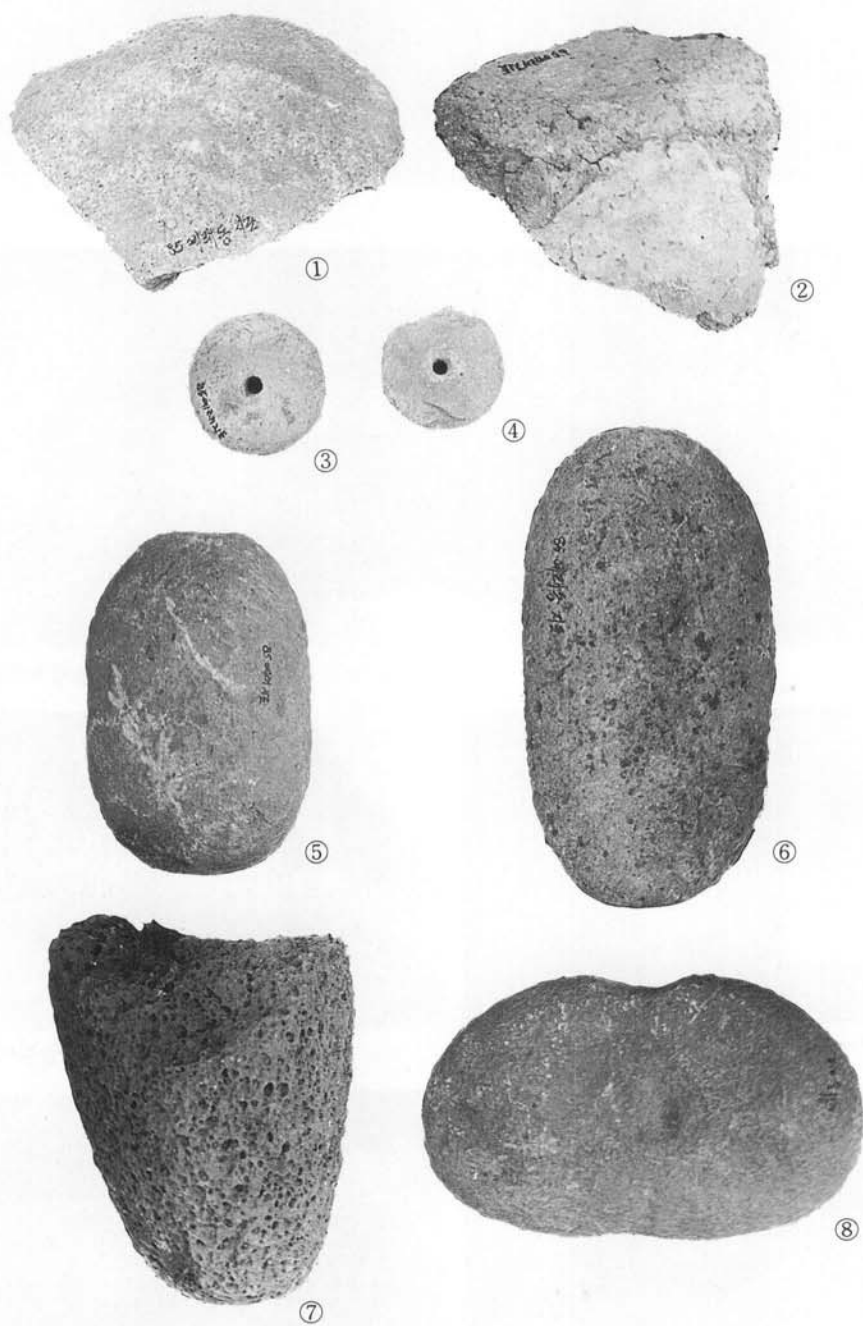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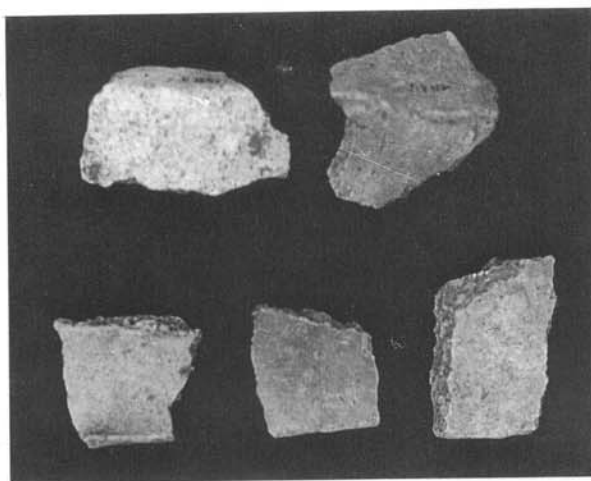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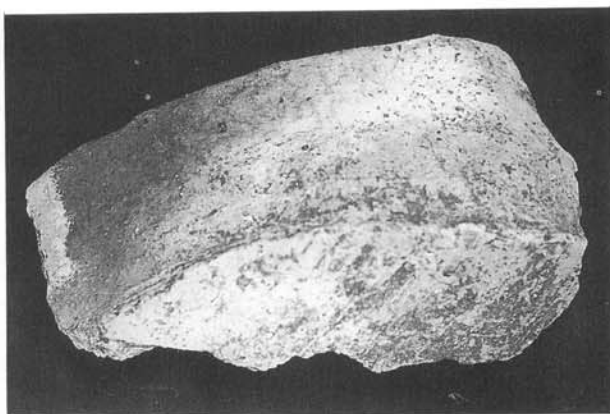
사진 4. 상예동유물산포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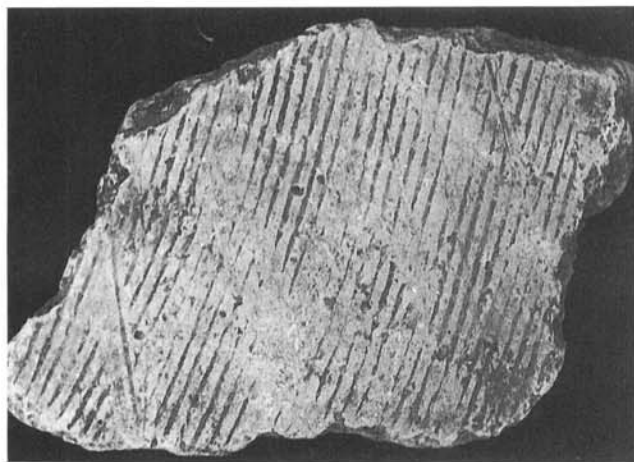
① 바위그늘집자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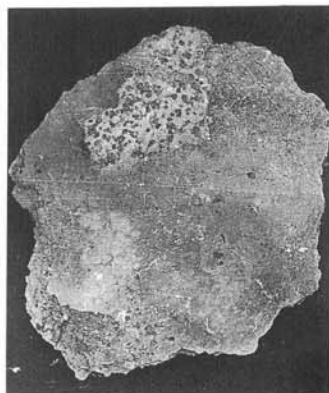
③ 적석유구



② 바위그늘집자리(2)



④ 토기빚질흔



⑤ 바위그늘집자리(4)

사진 5. 바위그늘집자리·적석유구 출토유물

IV.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1. 시굴조사

1) 개요

調査地의 정확한 지번은 제주도 서귀포시 섹달동 3113번지, 상예동 933, 937, 939, 940번지로 약 8000㎡면적에 해당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중문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사항중 埋葬文化財項을 보완조사하고 사업실시 여부에 따른 매장문화재 여부를 확인하여 매장문화재 확인시, 문화재 보호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調査는 1994년 5월 9일부터 1994년 6월 15일까지 35일간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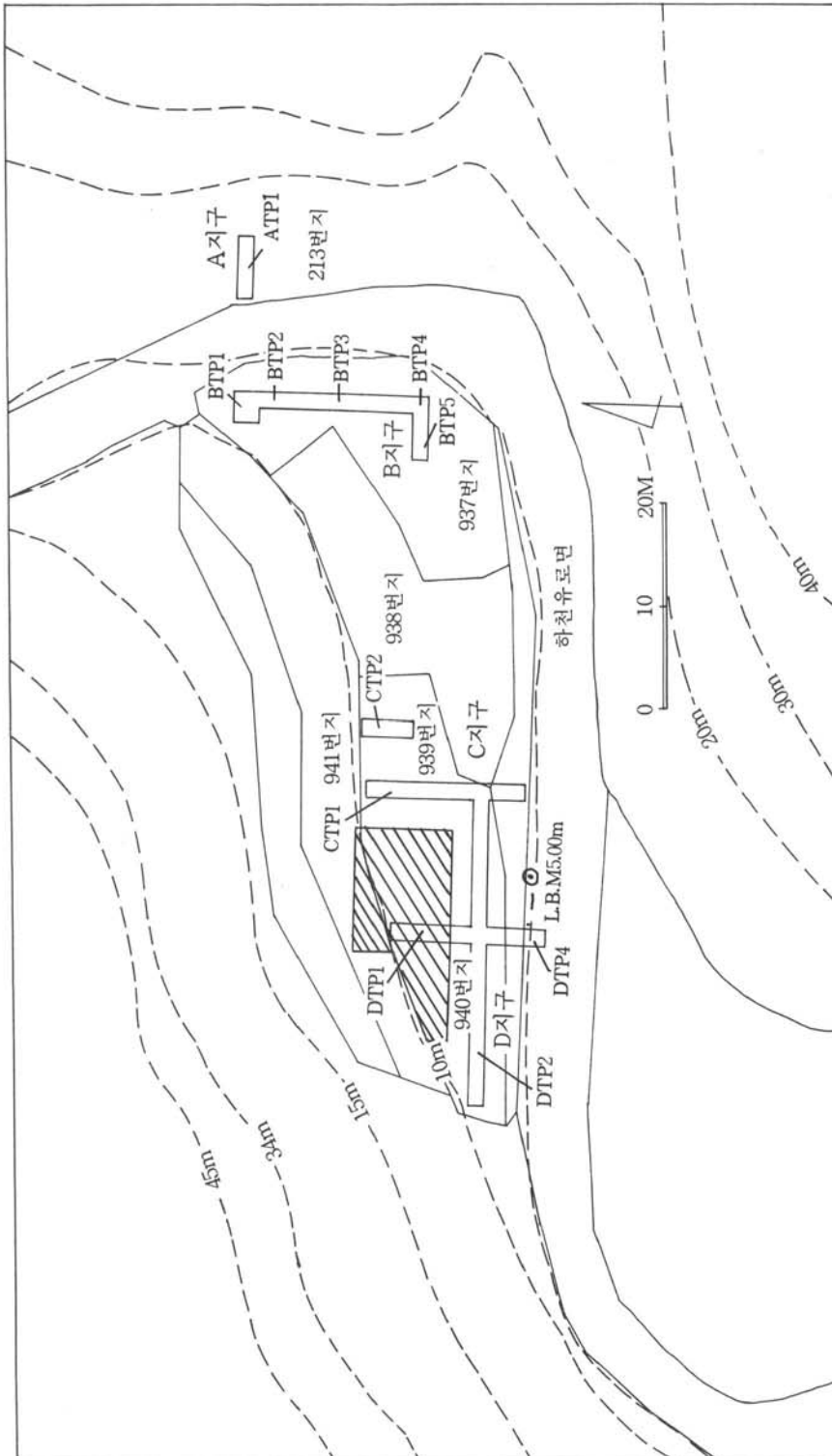
(1) 조사방법(도면 9 ; 사진 2)

가) 조사지역은 현 하수종말처리장 동북편에 위치하며, 예래천 하류의 하천과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하천 양쪽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절벽 하단의 대지가 조사지역에 들어간다. 지금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유채작물과 사료용 초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나) 조사대상지의 조사단위를 A,B,C,D지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A지구는 섹달동 3213번지, B지구는 상예동 935,937번지, C지구는 상예동 939번지, 그리고 D지구는 상예동 940번지에 해당된다.

다) 조사는 각 지구별로 폭을 2m로 하는 트렌치를 구획하여 표토를 제거한 다음 트렌치내에 2m×2m를 기본으로 하는 테스트피트를 구획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구별,피트별로 층위를 파악하고, 아울러 매장된 유물 및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 하였다.

라) 사업구역내 부지이면서도 토지소유자 임대동의를 얻지못한 상예동 938번지와 하천 절벽경사면에 위치한 상예동 941번지는 조사하지 못했다.



도면 6. 시굴조사·발굴조사 계획도

각 지구별 조사현황은 다음 “表”와 같다.

지 구	면 적 (㎡)	트 렌 치	테 슣 트 피 트
A	1 0 9 6	1m×10m	1.5m×2m 2개소
B	4 2 9	2m×42m, 2m×10m	2m×2m 5개소, 4m×4m 1개소
C	8 8 9	2m×23m, 2m×8m	2m×2m 4개소
D	8 1 3	2m×25m, 2m×32m	2m×2m 5개소, 2m×7m 1개소

2) 조사경과

조사 일자	조 사 일 지 내 용
5.8	발굴장비 이동 및 현장점검
5.9	현장회의, 기존자료정리, 지도와 도면점검
5.10~15	주변측량
5.16	현장주변 조사와 기준점 설정
5.17~19	A지구 구획및 잡초 제거 작업, A지구 테스트 피트Ⅰ 시굴, 테스트 피트Ⅱ 시굴, B지구 구획, 시굴종료 후 주변정리 및 사진촬영.
5.21~29	B지구 잡초제거와 테스트 피트Ⅰ,Ⅱ,Ⅲ,Ⅳ,Ⅴ 시굴, 시굴종료 후 주변정리와 사진촬영, C지구 구획
5.30~6.3	C지구 구획, D지구 잡초와 표토제거. 테스트 피트Ⅰ,Ⅱ 시굴, 시굴종류 후 주변정리와 사진촬영, A지구 토층 실측작업
6.4	C지구 테스트Ⅲ,Ⅳ 시굴, A지구 정리 후 사진촬영, B지구 토층실측 작업
6.5	C지구 토층실측 작업과 사진촬영, 출토유물 세척작업
6.6~11	D지구 트렌치와 테스트 피트Ⅰ,Ⅱ,Ⅲ,Ⅳ,Ⅴ,Ⅵ 조사
6.12~15	사진촬영과 토층실측 작업

3) 조사내용 - Trench와 Testpit조사

(1) 지구별 조사내용과 유물출토 상황

① A지구(도면 6 ; 사진 8)

테스트피트조사에서는 총 4개의 층위가 확인되었고, 표토층- 모래층-점토-모래층으로 연결된다. 하수면(유로)일부로 판단되는 모래층에서 작은 토기파편이 소량 확인된다.

② B지구(도면 6~7 ; 사진 9)

5개의 층위가 확인되는데, 표토-자갈이 섞인 점질토층-모래층으로 크게 구분되며, 맨 하층인 모래층에서 광지1식 항아리형 적갈색토기 파편들이 산발적으로 모래와 섞여 확인된다.

③ C지구(도면 6 ;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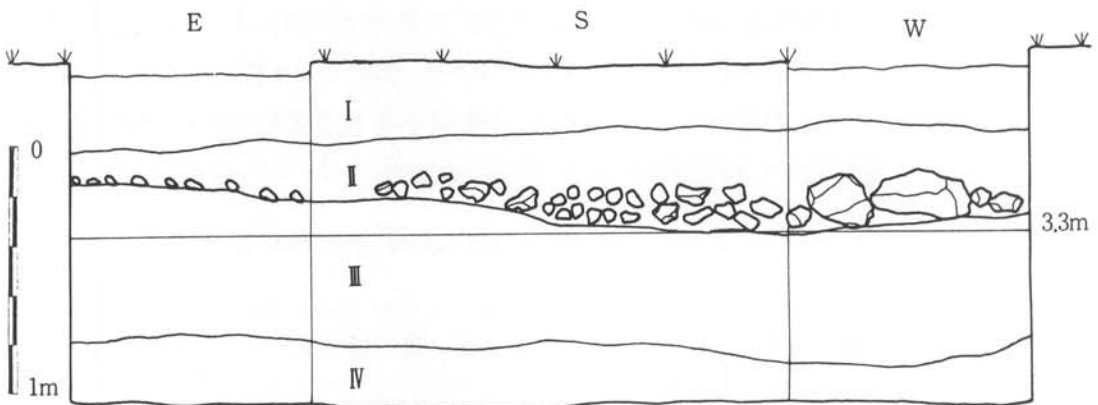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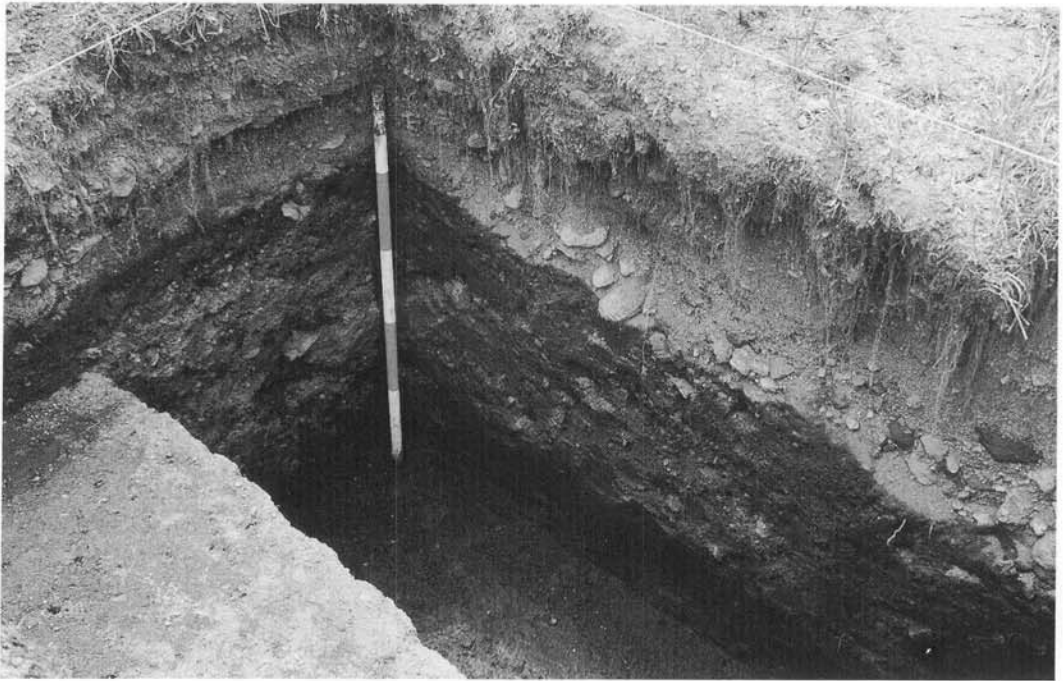
모래층-황갈색점토층-흑갈색사질토층-모래층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상층인 모래층에서 소량의 토기파편이 확인되었을 뿐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④ D지구(도면 6 ; 사진 10~12)

다른 구역과 거의 비슷한 층위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테스트피트(1)의 북편 단애면 경계부분의 퇴적층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확장조사한 결과 토기포함층이 단애면 경계 하단(지표하 2.5m)에서 확인되며, 다른 지점에 비해 다량의 토기편과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동일층에서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폭 2.0m의 적석군이 노출되었다.

(2) 조사대상지의 전체적인 층위와 층위내용은 다음 <表>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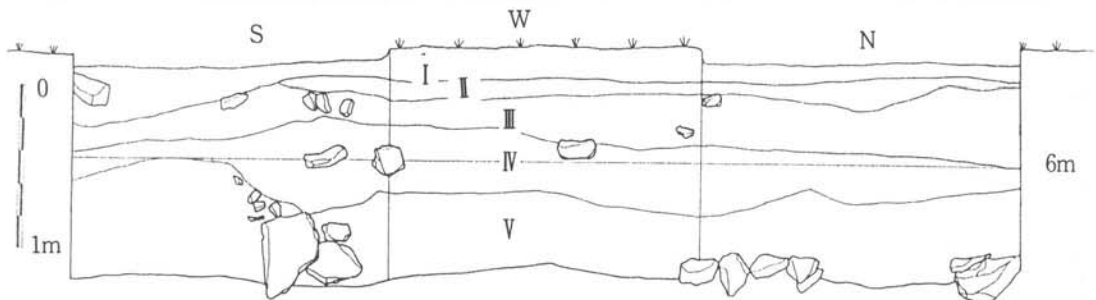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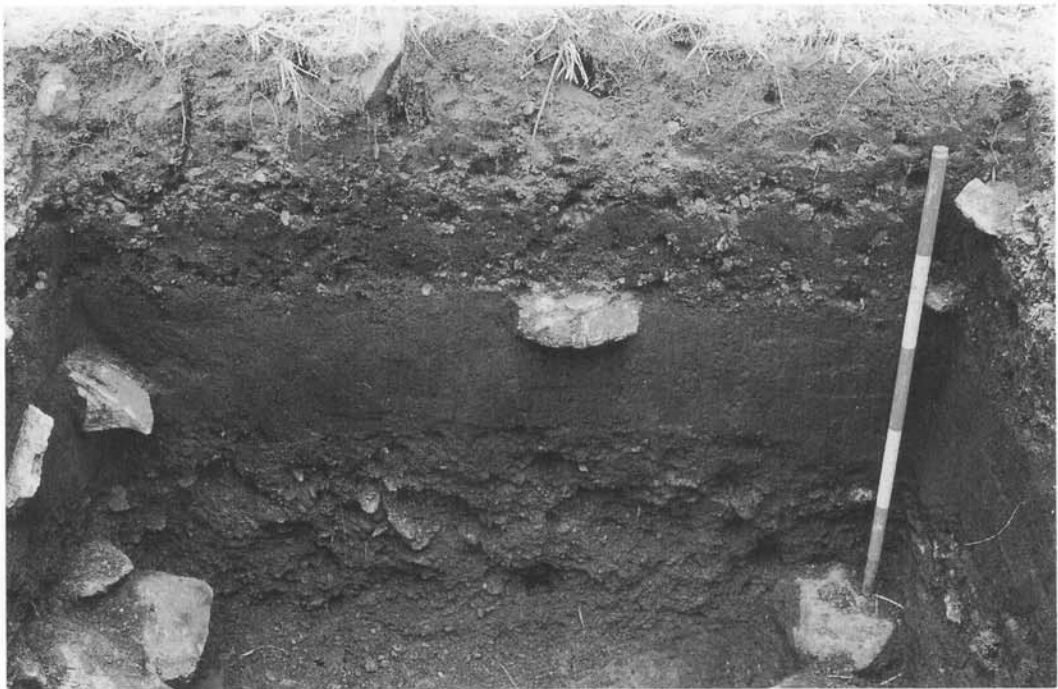
번 호	층 위	층 위 내 용
I (표토)	회색모래	하천의 범람과 유로의 변경등으로 인해 형성된 층.
Ⅱ 층	황갈색점토	잔자갈이 혼입되고 단단하게 다져진 경작토층.(舊地表層으로 판단됨)
Ⅲ 층	흑갈색사질점토	모래가 혼입되고 거친 잔자갈이 혼재되어 단단하게 굳어진 층.
Ⅳ 층	흑색점토	Ⅱ 층과 층위성분이 비슷하나, 비교적 고운 점질성분으로 이루어진 층.
V 층	흑갈색모래	大形割石과 거친 모래가 혼입된 층. 河川の 流路層.



A지구 TP-I 층위표

번 호	층위	두께	내용
I	표토	20~25cm	적갈색사질토층
II	회색모래층	15~45cm	층하면은 10cm내외의 둥근 자갈과 25cm 두께의 할석들이 깔려있다.
III	흑갈색점질토	50~65cm	비교적 거친 자갈이 많고 모래가 혼입된 층위
IV	흑색점토층		비교적 고운 점토 성분으로 모래 혼입이 III층 보다는 적고 자갈 혼입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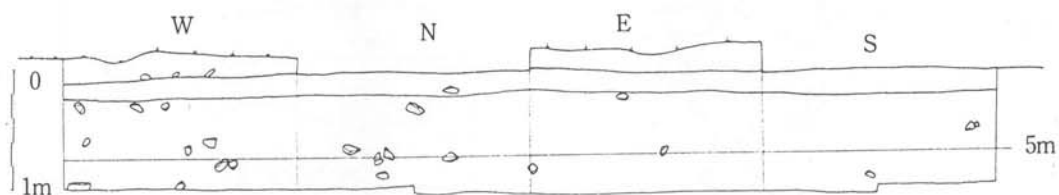
삽도 1. A지구 Testpit(I) 층위



B지구 TP-II 층위표

번 호	층위	두께	내용
I	표토	10~15cm	흑갈색사질토층
II	황갈색점질토	약 10cm	비교적 단단한 점성을 가진 층으로써 거친 입자의 잔 자갈이 혼입되어 있다.
III	흑갈색점질토	20~50cm	거친 자갈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고 층 자체가 점성이 강하다.
IV	흑색점토층	15~40cm	층 자체가 비교적 고운 점질 성분이며 잔자갈 혼입이 거의 없고 가끔 20~30cm가량 되는 할석이 혼재하고 있다.
V	흑갈색모래층		30~40cm정도의 할석과 거친 자갈이 혼입되어 있는 층으로써 흑갈색점토가 약간 혼입되어 있다. 이 층은 유토의 일부로 확인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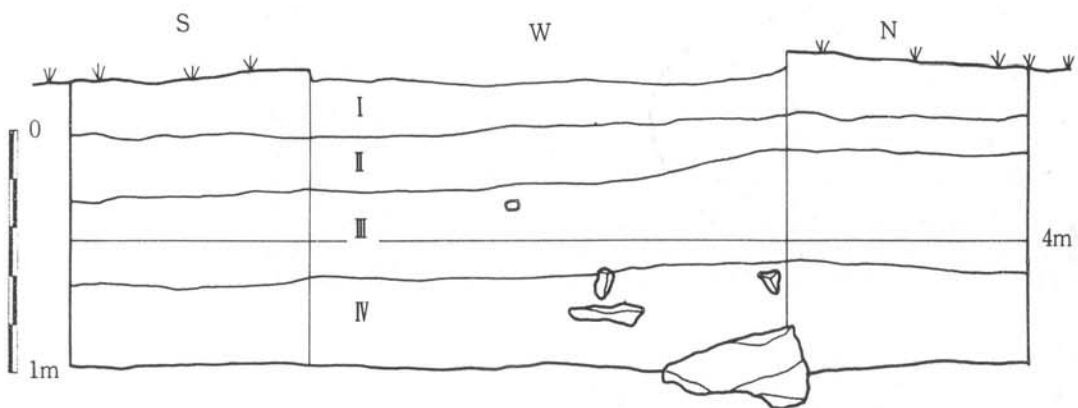
삽도 2. B지구 Testpit(II) 층위



C지구 TP-I 층위표

번 호	층 위	두 께	내 용
I	표토	15~20cm	
Ⅱ	황갈색점질토	10~15cm	거친 입자의 잔자갈들이 많고, 점성이 강하다.
Ⅲ	흑갈색점질토		자갈의 혼입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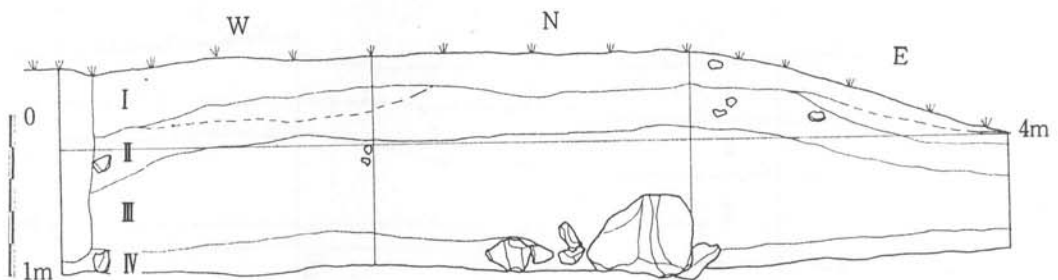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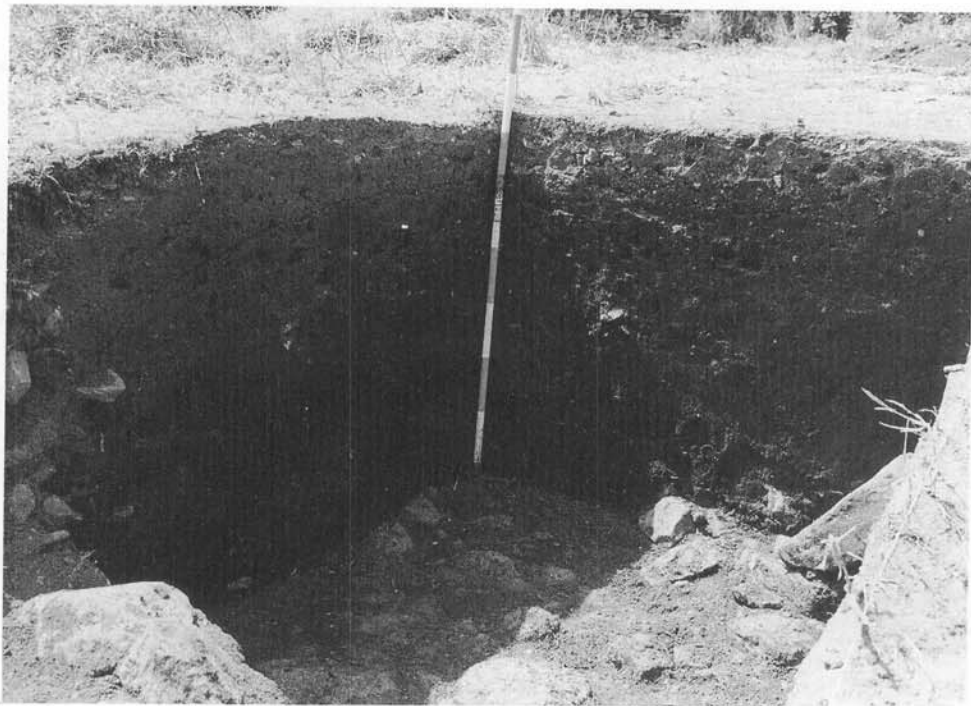
삽도 3. C지구 Testpit(I) 층위



D지구 TP-II 층위표

번 호	층위	두께	내용
I	표토	20~30cm	황갈색사질토층
II	황갈색점질토	15~25cm	비교적 점성을 가진 층으로써 거친 입자의 잔자갈 혼입이 매우 많다.
III	흑갈색점질토	35~50cm	거친 자갈 혼입이 많고 층 자체의 아래층보다는 점성이 약한 편이다.
IV	흑색점토		자갈 혼입이 거의 없는 고운 점토로 비교적 점성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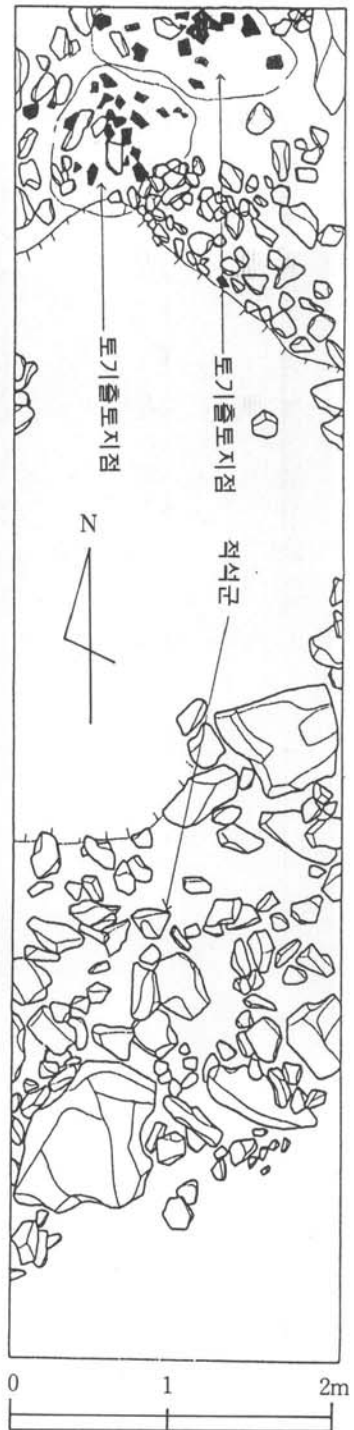
삽도 4. D지구 Testpit(II)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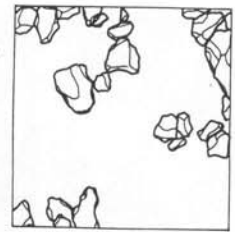
D지구 TP-IV 층위표

번 호	층위	두께	내용
I	표토	10~30cm	황갈색사질토층
II	황갈색점질토	20~35cm	0.5cm 내외의 자갈 혼입이 많고 비교적 점성이 약한 편이다.
III	흑색점토	25~50cm	1cm 내외의 자갈이 혼입되어 있고 비교적 윗층보다는 점성이 강하다.
IV	흑갈색미세사질토		약 20~50cm 길이의 모암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는 층이며, 미세사층으로 비교적 점성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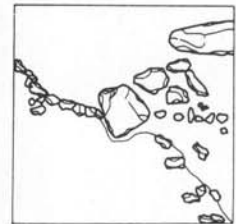
삽도 5. D지구 Testpit(IV)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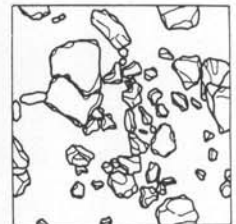
삽도 6. D지구 N-S Trench · 적석시설물



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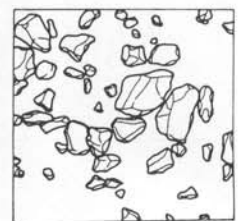
B-3



B-4



B-5



B-6

도면 7. 시굴조사 B지구 pit평면도

최근 하천의 범람과 관련된 흑갈색사질토층(표토층)이 10-25cm가량 형성되어 있었고, 이 층위에서는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토기편들이 소량 확인된다. 표토층 밑으로 확인되는 층은 황갈색점토층이며, 10-15cm 두께로 수평띠를 이루고 있다. 이 층은 경작과 관련된 층이며, 대지의 북동편은 특히 단단하게 다져진 흔적이 뚜렷하여 최근 하천범람이 있기전 장기간 구지표로 이용되어졌음을 알게 한다. 황갈색점토층 아래층은 흑갈색점토층으로 사질함량이 많으며 밑으로 갈수록 점성이 고운 층이다. 이 층위는 점성의 강도와 잔자갈의 배합정도에 따라 상층은 강도가 약하고 잔자갈의 함량이 많은 층으로 나누어져 2개의 층으로 세분시킬 수 있으나 동일한 층위로 퇴적 양상에 따른 차이일 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흑갈색점토층 밑으로 확인되는 층위는 흑갈색모래층으로 지표하 120cm 이하에서 확인되는 층위다. 이 층위는 현재 하천이 흐르는 가장자리에 가까울수록 큰자갈과 할석이 섞여있고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다시말해 A지구 2Pit, B지구의 2,3,4,5,6 Pit, C지구 3 Pit, D지구 4,5Pit는 모두 하천에 인접해 황갈색점토층이 약하게 나타나고 2,3층도 그 퇴적층이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 대지 안쪽의 Pit에서는 황갈색층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2,3층도 두텁다.

4) 출토유물(도면 8 : 사진 13~14)

시굴조사시 확인된 유물은 방추차 1점을 제외하고 괭지 1식 적갈색토기가 확인되었고 중요유물을 개별기술하면,

(1) 구연부(도면 8-①~⑩ ; 사진 13-①~⑩)

번호	명 칭	구 경	두께	속 성	색 조
1	구연부	35.4	1.1	내외면은 빗질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명갈색
2	구연부	14.4	1.0	내면은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직립구연형이다.	명갈색
3	구연부	23.0	0.8	내외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직립구연형이고 동체로 갈수록 커진다.	적갈색
4	구연부	12.6	1.0	내외면은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적갈색
5	구연부	15.8	0.6	내면은 빗질흔적과 대칼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적갈색
6	구연부	14.6	0.6	내외면은 물손질로 표면처리를 하였고, 손누름흔적도 보인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적갈색

번호	명 칭	구 경	두 개	속 성	색 조
7	구연부	15.8	0.8	내외면은 손누름흔적과 물손질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직립 구연형이다.	명갈색
8	구연부	11.6	0.6	태토는 가는 모래와 점토로 되어있다.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명갈색
9	구연부	16.4	1.0	내면은 대칼흔적이 있고, 외면은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적갈색
10	구연부	11.0	1.2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형태는 외반 구연형이다.	적갈색

* 구연부의 태토는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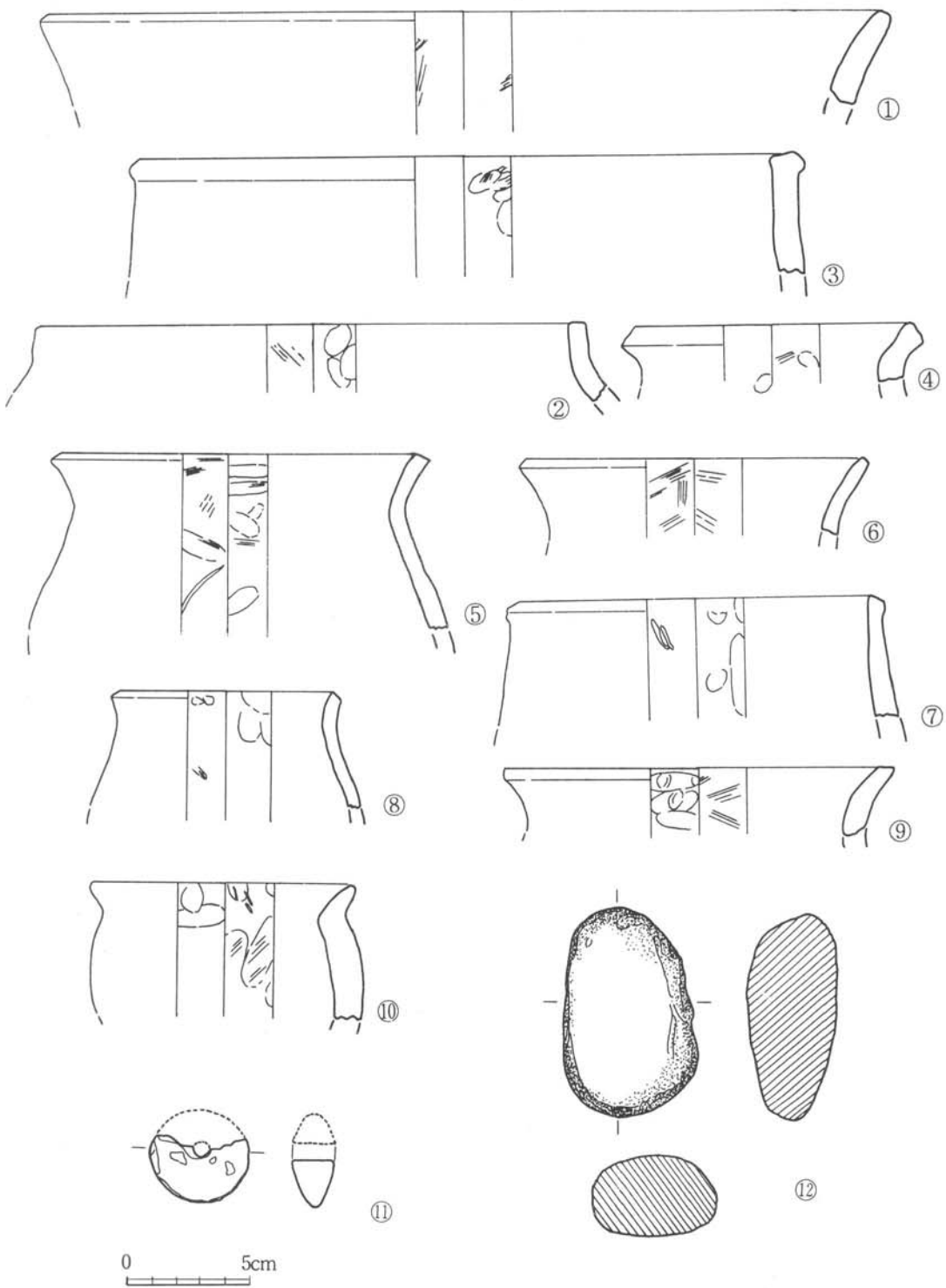
(2)저부(도면 9 ; 사진14)

번 호	명 칭	저 경	두 개	속 성	색 조
1	저 부	13.4	2.8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2	저 부	6.4	1.2	표면은 물손질흔적이 있으며, 내면은 거칠다.	적갈색
3	저 부	17.4	1.2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4	저 부	?	0.8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기형은 바닥에서부터 직립으로 올라간다.	적갈색
5	저 부	8.4	1.6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내면이 거칠다.	적갈색
6	저 부	11.6	1.8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내면이 거칠다.	적갈색
7	저 부	13.6	0.8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8	저 부	9.2	1.6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9	저 부	11.0	1.2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내면이 거칠다.	적갈색
10	저 부	9.6	1.4	표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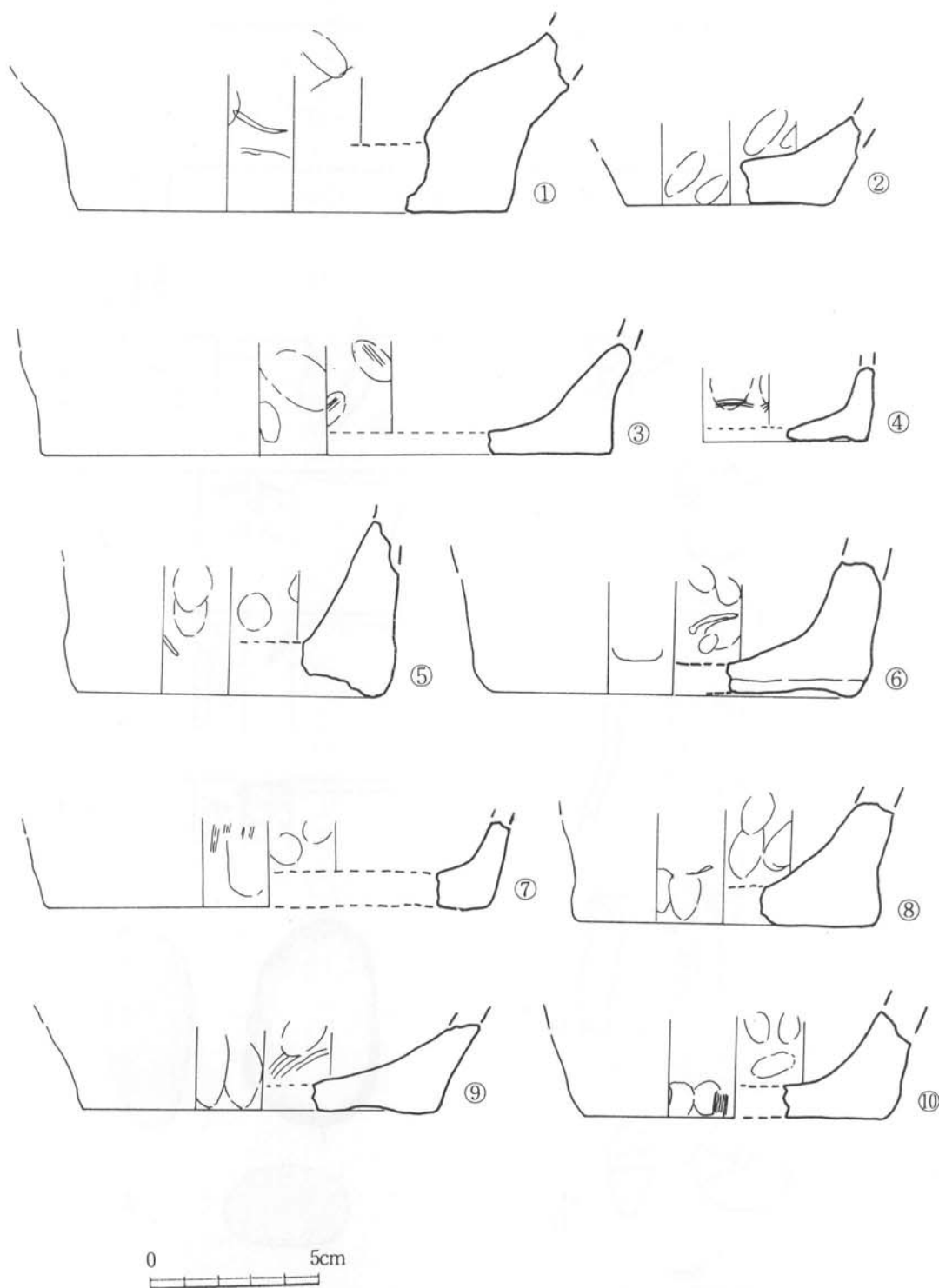
* 저부의 태토로는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3) 석기 및 토제품(도면 8-⑪~⑫ ; 사진 13-⑪~⑫)

번호	명 칭	크 기 (cm)	두께 (cm)	속 성	색 조
1	방추차	직경:4.1, 내공구경:0.6	2.0	태토는 굵은 현무암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반파된 상태이며, 형태는 주판알모양이다.	적갈색
2	공이	길이:8.4, 폭:5.1	3.7	안산암제 川石으로, 한쪽면에만 마모된 흔적이 있다.	



도면 8. 시굴조사 출토유물(1)



도면 9. 시굴조사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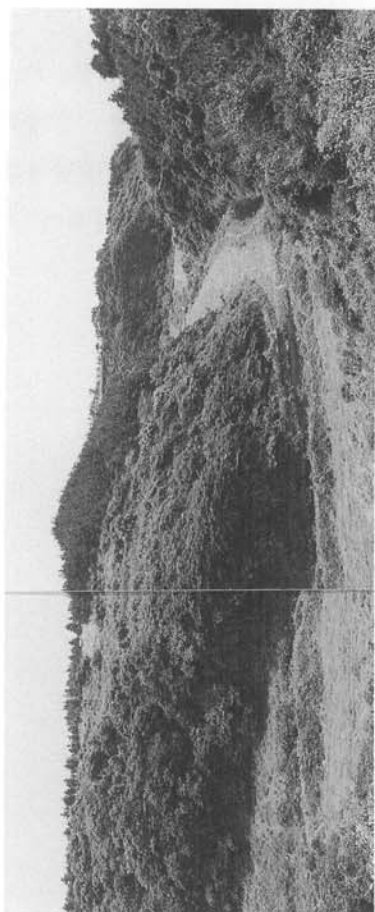
5) 고찰

가) 조사대상지 각 피트의 모래층내부에서 확인되는 토기편은 同모래층 자체가 하천의 流路와 관련되어 퇴적된 층으로 판단되므로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유물들로 판단된다. 즉, 이 모래층은 문화층이 아니며 유물도 원상에서 이탈한 것들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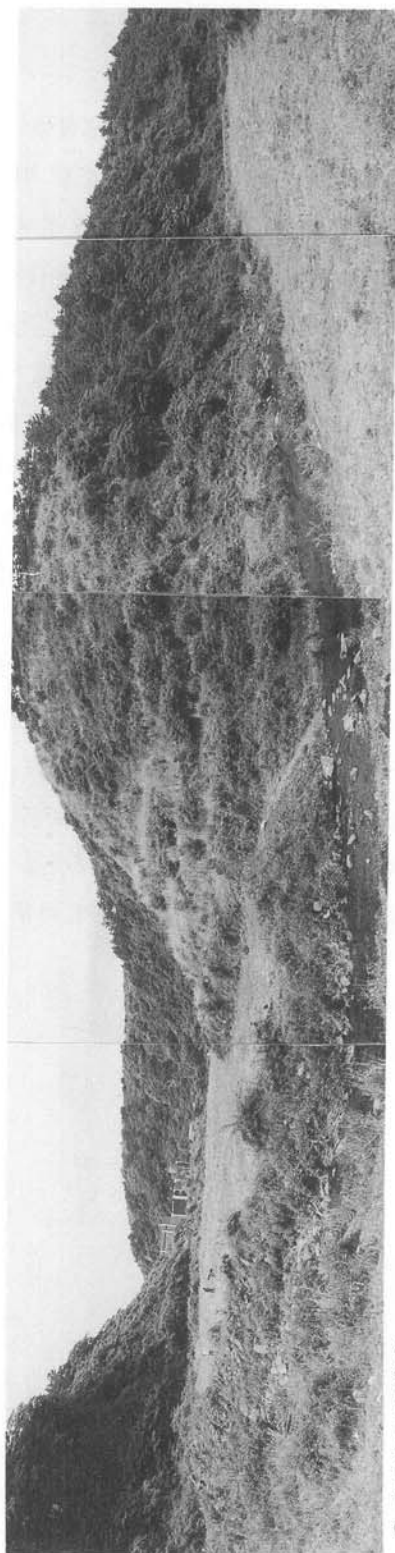
나) D지구 단애면 경계에서 보이는 토기포함층은 토기사용 당시 형성된 유물층으로 판단된다. 또한 同遺物層 레벨에서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타원형 積石施設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지점은 토기포함층과 적석시설물이 동일층내에 속해있고 다른 지점에 비해 토기편들이 집중 발견되므로 유구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조사대상지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적갈색토기는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분포권이 넓고 흔한 유물로, 대략 그 시기는 탐라시대 전기(원삼국시대, A.D. 0~500)에 해당하는 토기이다. 이 토기들은 상예동유물산포지에서 대량 발견되고 있어, 조사대상지내에서 발견되는 이들 토기들도 예래 '한천'의 하류에 주거했던 당시 생활터의 범위에서 사용했던 그릇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 조사대상지이면서도 조사하지 못한 941번지는 아래밭 단애면 경계부분(D-1 Pit의 북편)에서 토기문화층이 확인되고, 토지소유자의 임대동의를 얻지 못한 상예동 938번지는 하천의 퇴적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지의 중앙부분이므로 차후 『종말처리장시설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행해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와 그 성격을 확인하는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1994.6.15)



① 유적원경(북에서)



② 유적원경(동에서)

사진 6. 시굴조사대상지 전경



① 전경(서에서)



② 조사광경(B지구)

사진 7. 시굴조사대상지 전경·조사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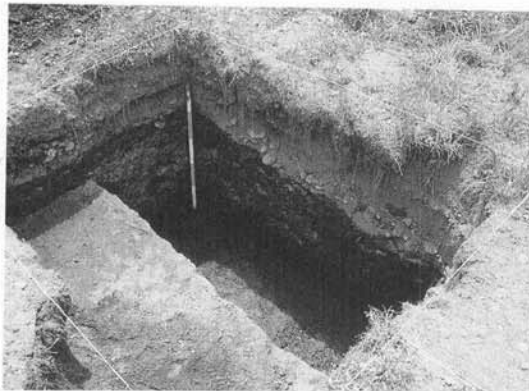
① A1, A2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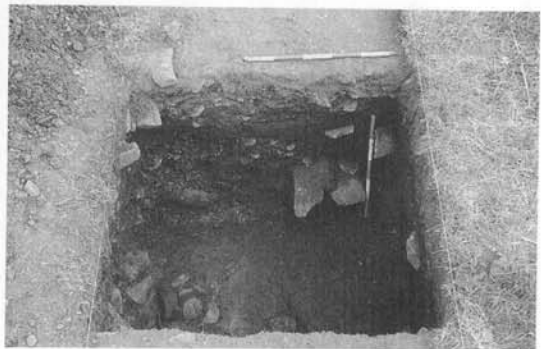
② A1 pit 층위상태



④ B1 pit 평면상태



③ A2 pit 층위상태



⑥ B3 pit 평면상태



⑤ B1 pit 층위상태



⑦ B3 pit 층위상태

사진 8. 시굴조사 pit전경



① B2 pit 노출상태



② B4 pit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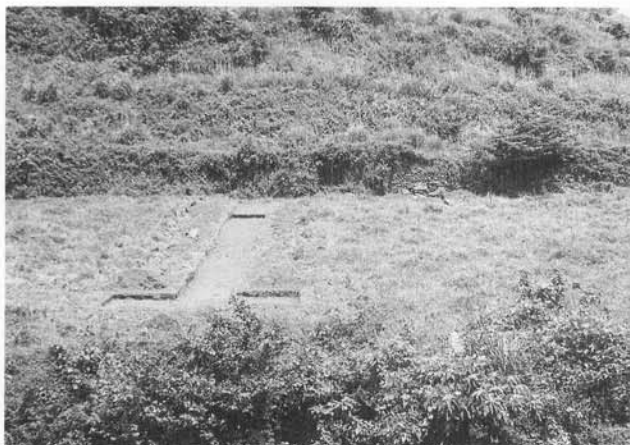


③ B5 pit 노출상태



④ B6 pit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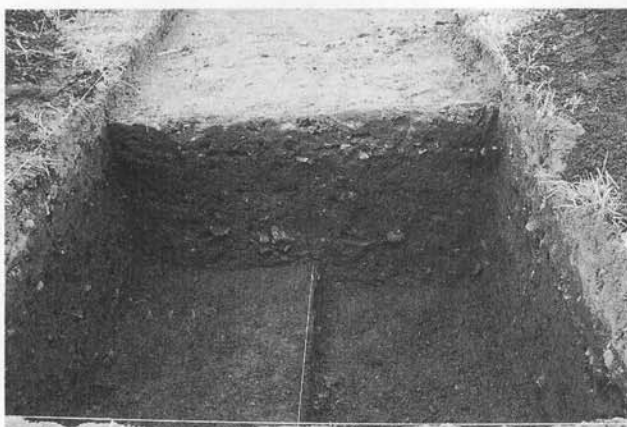
사진 9. 시굴조사구역내 B지구 pit노출상태



① C지구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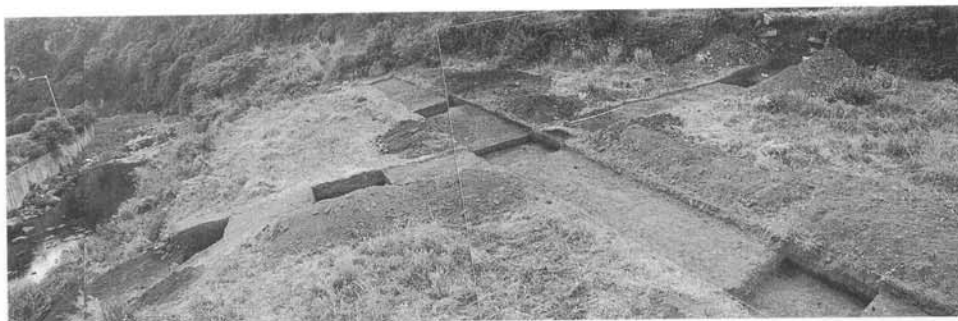


② 적석벽과 pit 노출상태



③ C1 pit 층위상태

사진 10. 시굴조사구역내 C지구조사



① Trench · pit 구획상태



② 조사광경



③ D1 pit 층위상태



④ D4 pit 층위상태



⑤ D2 pit 층위상태



⑥ D3 pit 층위상태

사진 11. D지구조사



① 단애면 Trench 노출상태

② 단애면 적석유구 노출상태



③ 단애면 층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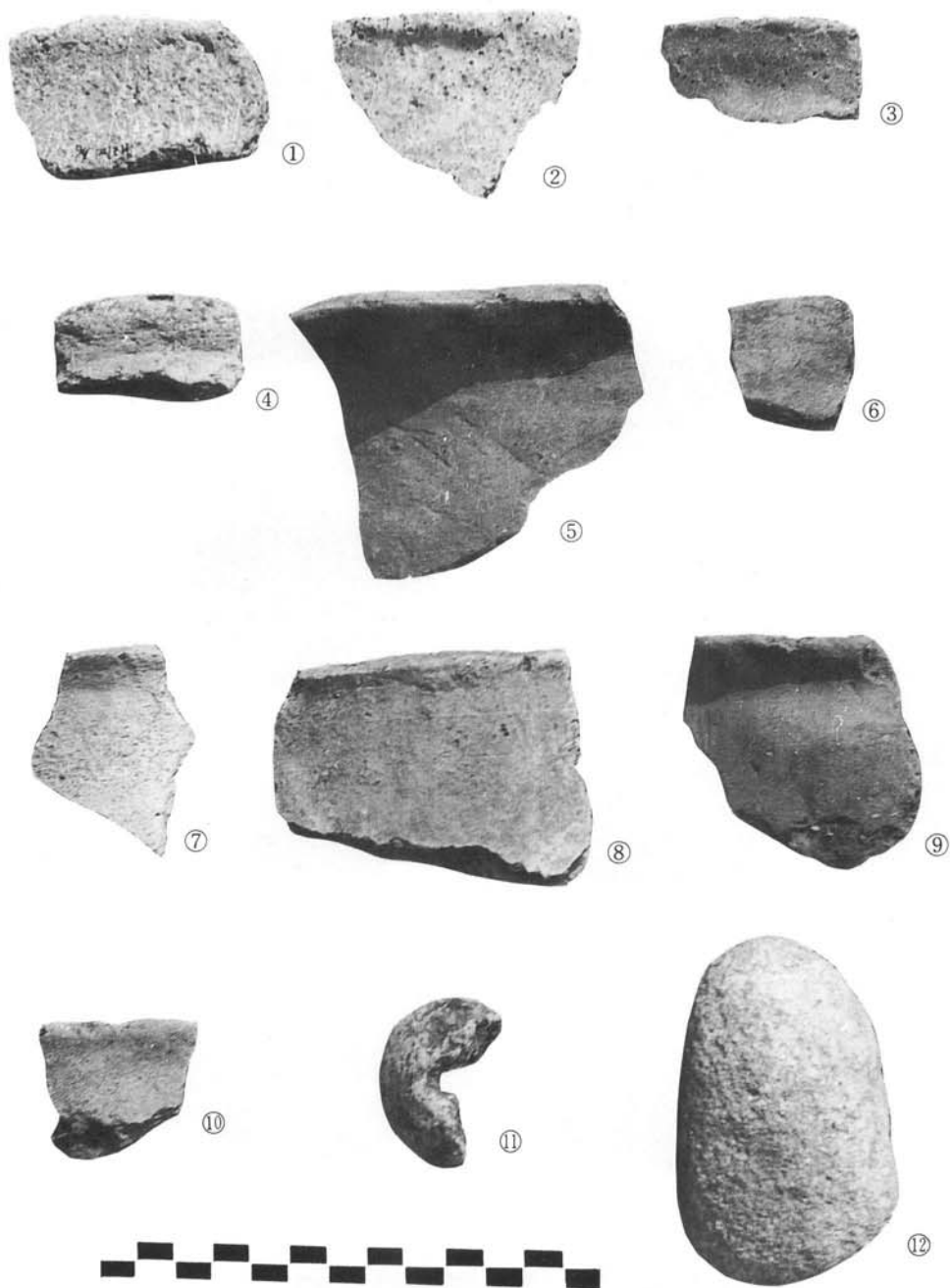


④ 적석유구노출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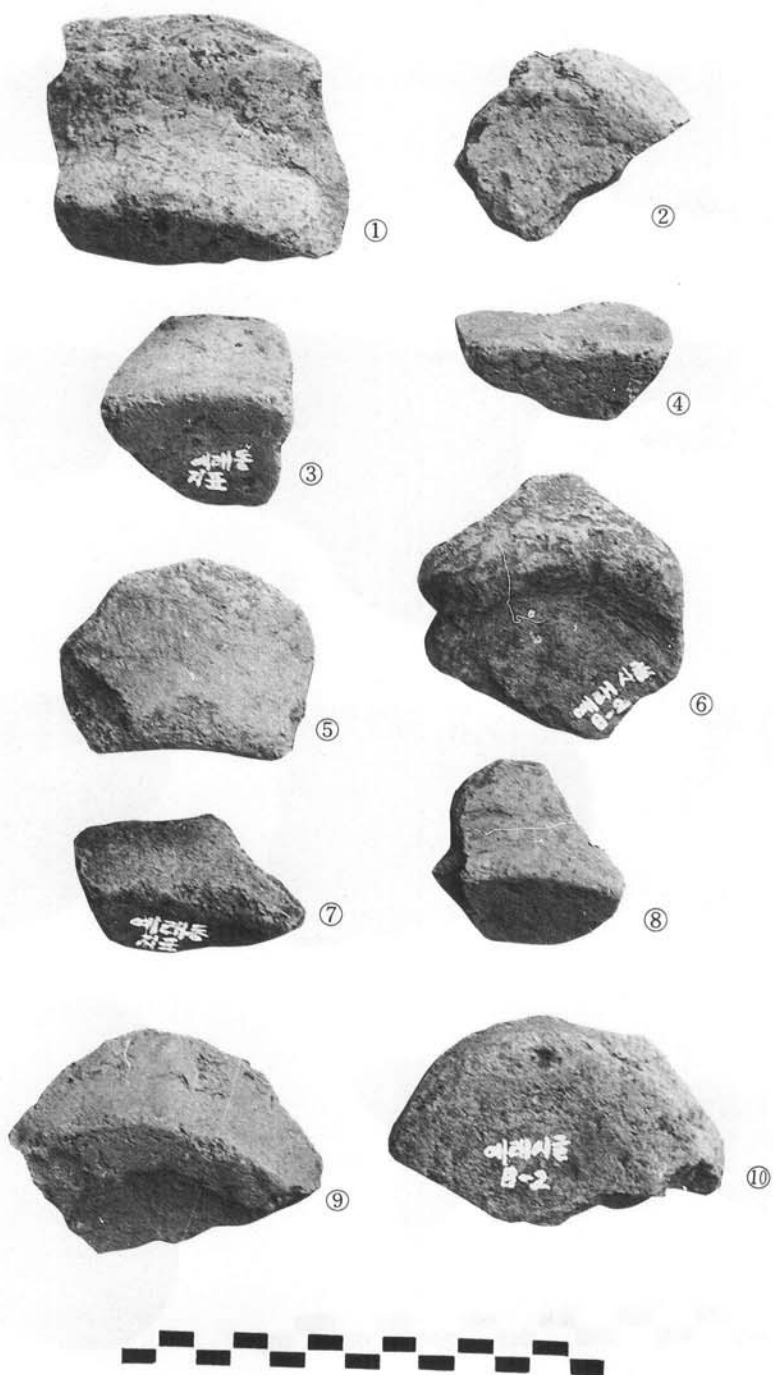
⑤ 유물포함층

사진 12. D지구 단애면조사



①~⑩ 적갈색토기 ⑪ 방추차 ⑫ 공이

사진 13. 시굴조사구역내 출토유물



①~⑩ 저부

사진 14. 시굴조사구역내 출토유물

2. 발굴조사

1)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증문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사항중 매장문화재항의 보완조사에 따른 조사로써 유적의 학술적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여 문화재로서의 보호조치를 거론하기 위한 조사였다.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상예동 940번지와 941번지 접경지점이었으며 총 발굴면적은 600㎡정도 해당되었다. 서귀포시청에서 발굴을 의뢰받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발굴을 시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경과

(1) 조사방법(도면 6,10 ; 사진 15~16)

정밀지표조사시 D지구 NSTr북편단애면에서 토기포함층이 확인되었고 금번 발굴은 이 부분에 한해 확장발굴을 하는 식으로 실시하였다. 일단 토기포함층(문화층)을 확인하는 Test pit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층상면의 표토층과 경작층을 확인하고 상면의 토층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하였다. 표토층을 제거한 확장 pit내부에 대한 발굴조사는 전면발굴을 기본으로 하되 Trench와 Test pit조사를 병행하였다. 폭 2m×4m의 트렌치 3개는 남북으로 4m간격으로 구획하고 그 트렌치내의 토층을 확인하기 위한 Test pit(4m×2m) 3개를 구획하여 발굴하였다.

(2) 조사경과

1994년 10월 2일에 현장에 도착하여 유적의 상태를 점검한 뒤 현장조사텐트를 설치하였다. 3일에는 발굴부의 상층(모래층과 표토)과 단애면을 삭토한 후 핏트 2개(2m×2m)를 설치하여 Test pit에 대한 층위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4일부터 15일까지(11일)는 적석유구 및 구덩이에 대한 유구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실측은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했으며 17일에는 유구에 대한 사진촬영작업이 있었다. 18일은 유물수거와 정리작업이 실시됐으며 19일에는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비닐을 덧씌우는 작업과 토양샘플링작업이 있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난후 현장에서의 철수는 20일에 있었다.

3) 조사내용

(1) 층위내용(사진 ; 20)

유적의 층위는 총 7개로 파악되었다.

번호	두께	층위	층위내용
I	85~120cm	흑갈색부식토층	윗밭의 흙이 매립된 층
II	120~240cm	자갈층	윗 단면의 층으로 구덩이 내부로 함몰된 적석층
III	15~25cm	회색모래층	아래밭의 표토층
IV	30~37cm	황갈색점토층	잔자갈이 혼입되고 단단하게 다져진 경작토층
V	25~35cm	흑갈색사질토층	거친 잔자갈이 혼입되고 층 자체가 아래층보다 점성이 약한 토층
VI	30~37cm	흑색점토층	자갈 혼입이 거의 없는 고운 점토로 점성이 강함.
VII	30cm이하	흑갈색모래층	대형 할석과 거친 모래가 혼입된 층이며, 하천의 流路로 원래의 바닥층.

(2)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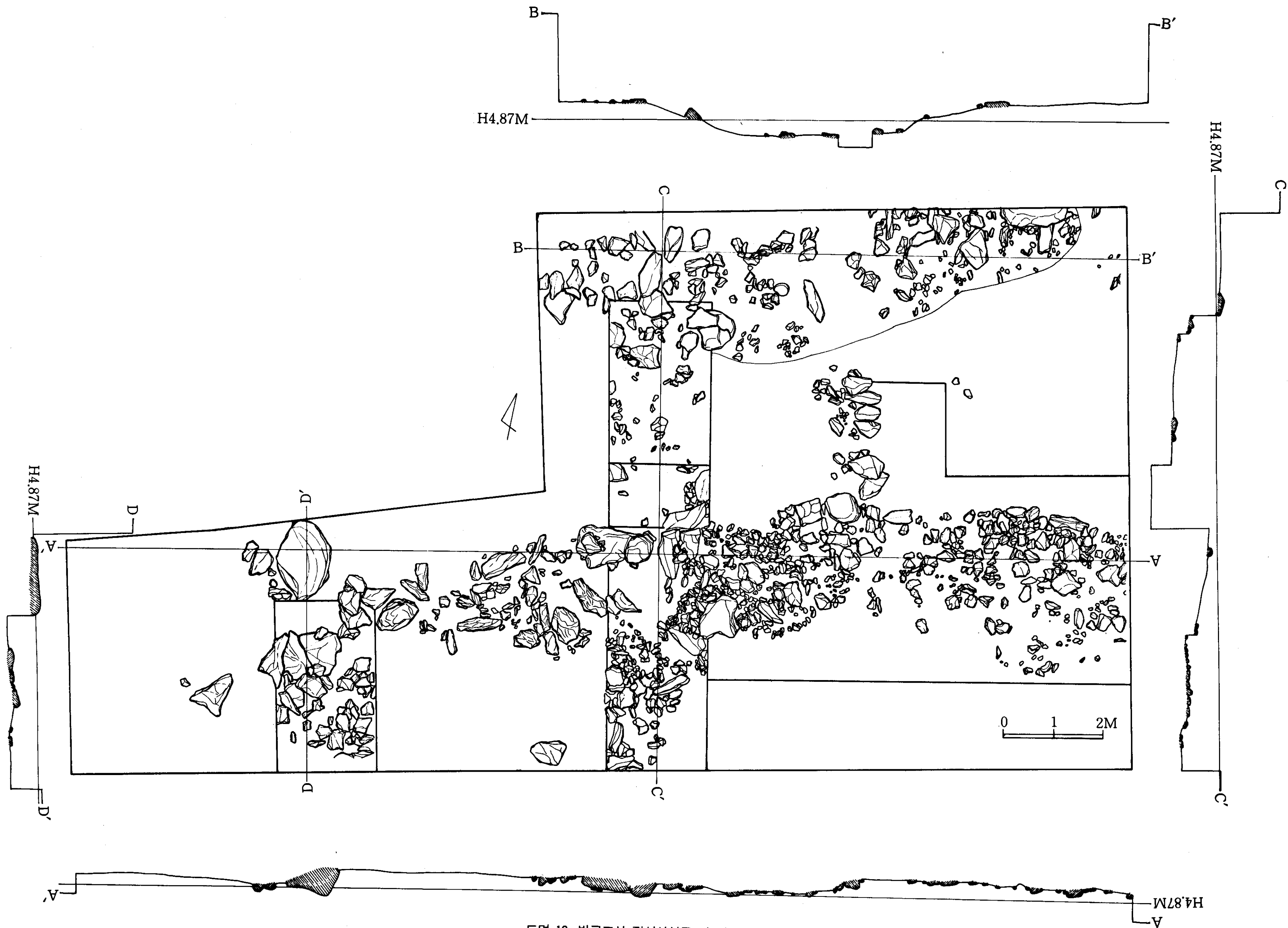
가) 적석유구(도면 10 ; 사진 16~17)

하천의 유로방향과 동일하게 북동-남서로 나아가는 일련의 적석열이다. 이 적석은 대략 2~2.5m의 폭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예래동 하천절벽에서 보이는 점판암 조각을 이용해 축조되었는데 현재 노출된 적석열의 길이는 17.6m이다.

노출된 적석열의 상황을 보면 북편의 적석열은 대형 할석을 이용해 정연하게 가지런히 축조된 반면, 남쪽의 적석열은 불규칙하게 축조되어져 있다. 또한 남쪽의 적석열은 상면에서 흘러내린 적석상면의 돌들이 아래층에 퇴적된 것이 분명하고 북편의 정연한 적석열맞춤상태로 보아 인공적인 성격의 석열이라는 점에서 적석 상면이 현재의 높이보다 50cm이상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Test pit조사시, 적석주변에 이전의 유로 흔적(모래층)이 확인되어 생활공간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일 가능성이 있다.

나) 구덩이(도면 10 ; 사진 18~19)

적석열 중앙 북편에서 길이 8.8m, 깊이 0.7m의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는 단면 절개 작업을 한 결과 구덩이 내부에 혼재된 적석층은 후대에 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에는 물이 스며들어와 항상 고여 있는 상태이다. 적석유구와 관련된 일련의 유구로 판단되나 유구가 절반가량 노출된 상태이므로 차후 조사후 그 성격을 거론할 수 있다.



도면 10. 발굴조사 적석시설물 평·단면도

4) 출토유물(도면 11~16 ; 사진 21~26)

유물의 대부분은 적석유구와 구덩이내부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거의 전부가 3~5cm크기의 적갈색토기 파편 100여점으로 전체기형을 추정할만한 크기의 것은 없다. 그밖에 회청색경질토기편 소량, 석재 공이류 3점이 출토되었다.

적갈색토기는 크게 팍지리 유적을 통하여 알려진 팍지1식토기이다. 이 토기는 그릇의 두께가 두텁고 투박한 항아리형토기로, 탐라시대전기(기원 0~500)에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회청색경질토기는 육지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략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항아리편으로 여겨진다. 공이류는 다공질현무암제로 대상음식물을 빻는데 사용된 것이며 석기 아래부분이 마모되어 있다. 각 유물을 개별 기술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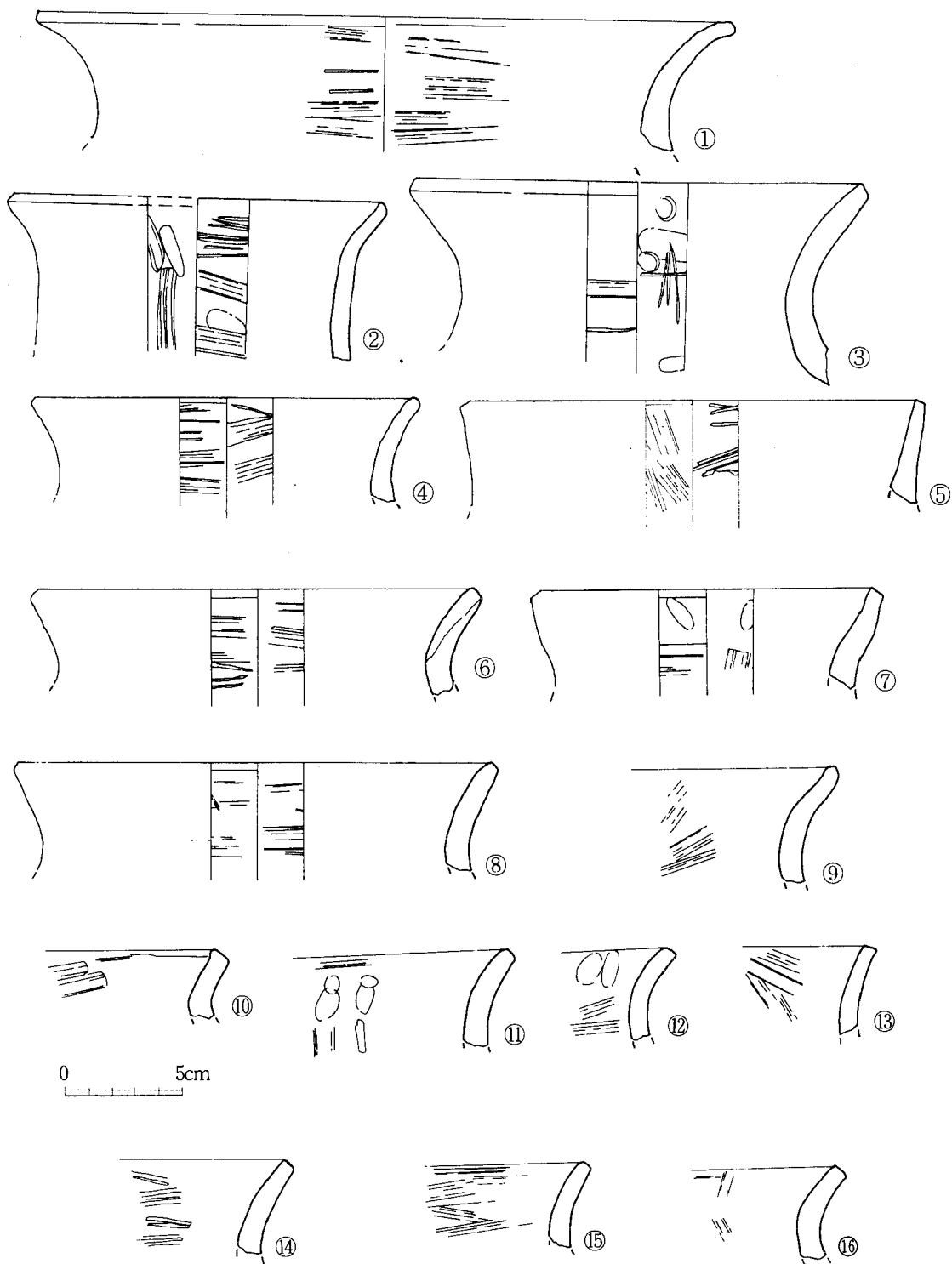
(1) 구연부(도면 11 ; 사진 21)

구연부의 형태는 외반각도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된다. 첫째유형은 팍지패총 2지구 Ⅱ층에서 출토되는 호형토기와 유사한 형태로 어깨부분에서 급격하게 외반되는 것과 동체에서 밋밋하게 올라가 구연에서 약간 외반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구연부의 속성은 다음의 <表>와 같다.

번호	명 칭	구경 (cm)	두께	속 성	색 조
1	구연부	32.0	1.0	외면은 빗질흔적이 보이며, 구연형태는 외반되어 있다.	명갈색
2	구연부	16.0	0.8	내외면에 빗질수법이 보인다. 형태는 목이 긴 외반구연형이다.	명갈색
3	구연부	19.6	1.0	내외면은 물손질과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암갈색
4	구연부	16.8	0.6	내외면 모두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다.	적갈색
5	구연부	19.4	0.4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며 표면 상태는 거칠다.	명갈색

번호	명 칭	구경 (cm)	두께	속 성	색 조
6	구연부	18.8	0.8	내외면 처리는 빗질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며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7	구연부	14.4	0.6	내외면에 물손질과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8	구연부	20.4	0.8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9	구연부	?	1.0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보인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외면이 거칠다.	명갈색
10	구연부	?	0.8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1	구연부	?	1.0	내외면에 물손질과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2	구연부	?	0.8	내외면에 물손질과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3	구연부	?	0.6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4	구연부	?	1.0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5	구연부	?	0.8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암갈색
16	구연부	?	1.0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형태는 외반구연형이고, 접합된 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 구연부의 태토로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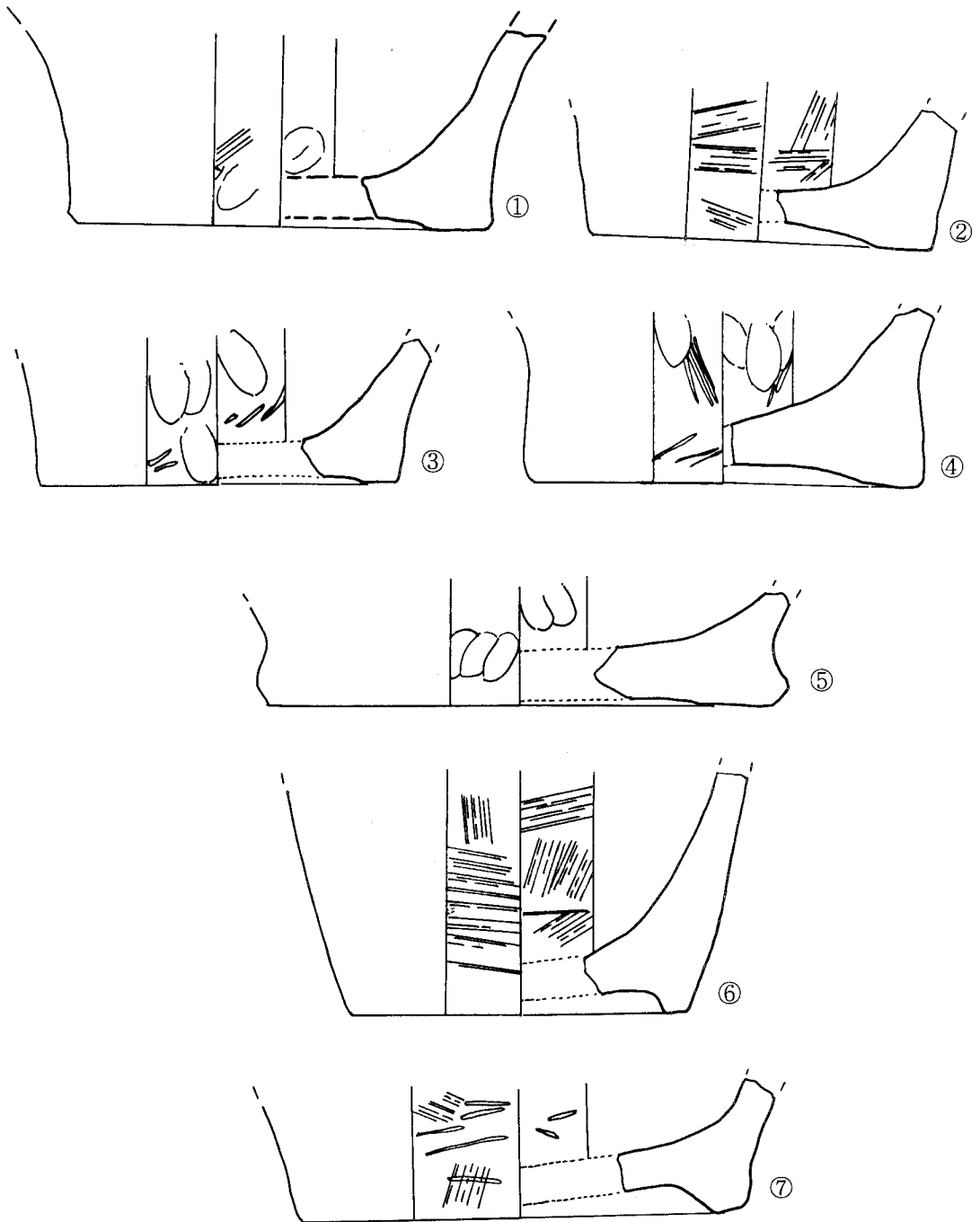
도면 11. 발굴조사 출토유물(1)

(2) 저부(도면 12~24 ; 사진 22~25)

번호	명 칭	저경 (cm)	두께 (cm)	속 성	색 조
1	저 부	19.4	1.2	내외면에 손누름흔적이 있다.	명갈색
2	저 부	9.4	1.4	내면은 거칠고 외면은 물손질로 인해 표면처리가 잘 되어 있다.	명갈색
3	저 부	11.8	1.2	내외면이 모두 거칠다.	명갈색
4	저 부	9.4	1.0	내외면 모두 손누름흔적이 보인다.	명갈색
5	저 부	12.0	1.2	내외면의 처리가 잘되어 있다.	적갈색
6	저 부	14.6	1.8	내외면 처리가 잘되어 있다. 내면은 거칠고 외면은 물손질흔적이 있다.	명갈색
7	저 부	11.2	1.6	내면은 거칠고 외면은 물손질을 하였다.	내면:명갈색 외면:적갈색
8	저 부	11.2	1.8	내면은 거칠고 외면은 물손질을 하였다.	내면:암갈색 외면:명갈색
9	저 부	14.0	1.6	내면은 거칠고 바닥면에 빗질흔적이 뚜렷하다.	명갈색
10	저 부	16.6	1.2	내면은 파손되었고 외면은 빗질흔적과 손누름흔적이 뚜렷하다.	적갈색
11	저 부	15.2	1.8	외면 일부에 대칼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12	저 부	16.0	1.8	내외면 모두 빗질흔적이 있으며 표면처리가 잘 되어 있다.	적갈색
13	저 부	12.2	1.0	태토에 모래와 입자가 작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으며 내면은 슬립이 벗겨져 있다.	명갈색
14	저 부	2.4	1.2	외면에 빗질흔적이 있으며 굵저부이다.	적갈색
15	저 부	10.2	1.4	내외면 모두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굵저부이다.	적갈색
16	저 부	12.4	1.2	내외면 모두 손누름흔적과 대칼흔적이 있으며, 굵저부이다.	적갈색
17	저 부	11.6	1.4	내면은 슬립이 벗겨진 상태이며, 외면은 빗질흔적이 있다. 굵저부이다.	명갈색
18	저 부	14.6	0.8	태토는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으며, 점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면은 슬립이 벗겨져 있고, 외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명갈색
19	저 부	10.0	1.0	내면과 외면 모두 빗질흔적이 있으며, 표면 처리가 잘되어 있다. 굵저부이다.	명갈색
20	저 부	13.2	1.0	내면은 슬립이 벗겨진 상태이고, 외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누른흔적이 있다. 굵저부이다.	명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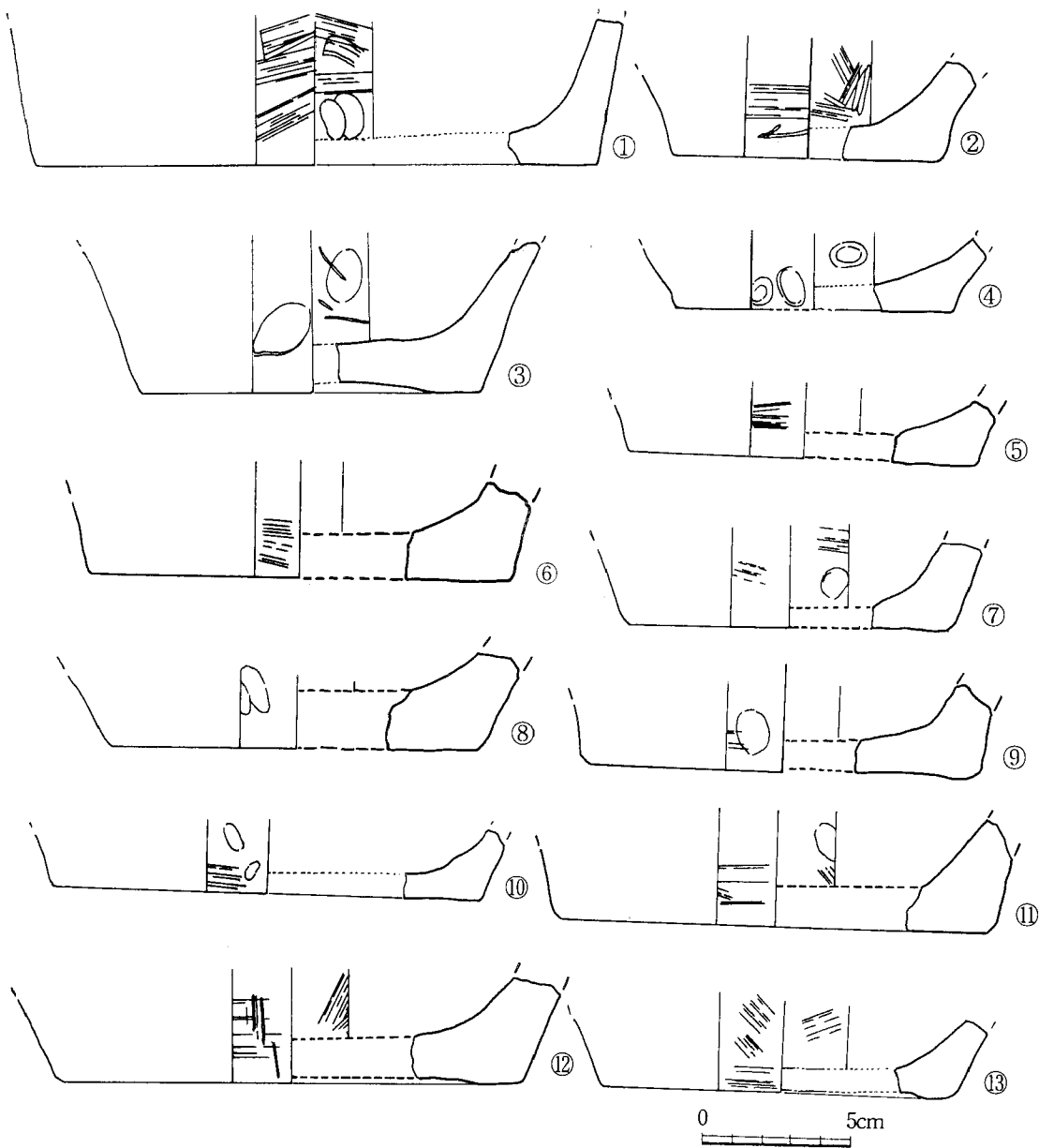
번호	명 칭	저경 (cm)	두께 (cm)	속 성	색 조
21	저 부	12.8	2.0	내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대칼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명갈색
22	저 부	9.8	1.2	내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손누름흔적이 있다.	적갈색
23	저 부	11.6	1.0	내면은 예새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빗질흔적과 손누름흔적이 있다.	적갈색
24	저 부	9.6	0.8	태토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보인다.	적갈색
25	저 부	12.6	2.4	내면은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26	저 부	8.4	1.4	태토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면은 슬립이 벗겨져 있으며, 외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그은 흔적이 있다.	명갈색
27	저 부	10.0	1.0	내면은 손누름흔적이 있으며, 외면은 손누름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28	저 부	10.0	0.8	내면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외면은 손누름흔적이 있다.	명갈색
29	저 부	16.8	0.6	내외면 모두 손누름흔적이 있다.	적갈색
30	저 부	13.0	1.6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표면은 매끄럽다.	적갈색
31	저 부	3.4	1.2	내외면은 빗질흔적이 있다. 표면은 매끄럽다.	적갈색
32	저 부	13.4	2.0	태토는 고운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33	저 부	8.6	1.8	내외면은 빗질흔적이 있으며, 내면이 거칠다.	적갈색
34	저 부	12.6	1.6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내면은 거칠다.	적갈색
35	저 부	9.4	1.6	내외면은 빗질흔적으로 인해 표면이 매끄럽다.	적갈색
36	저 부	9.8	1.8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37	저 부	12.6	2.2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내면은 거칠다.	적갈색
38	저 부	10.2	2.0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39	저 부	19.8	1.2	내외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적이 있다. 표면은 매끄럽다	적갈색
40	저 부	10.4	2.2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있다.	적갈색

* 저부의 태토로는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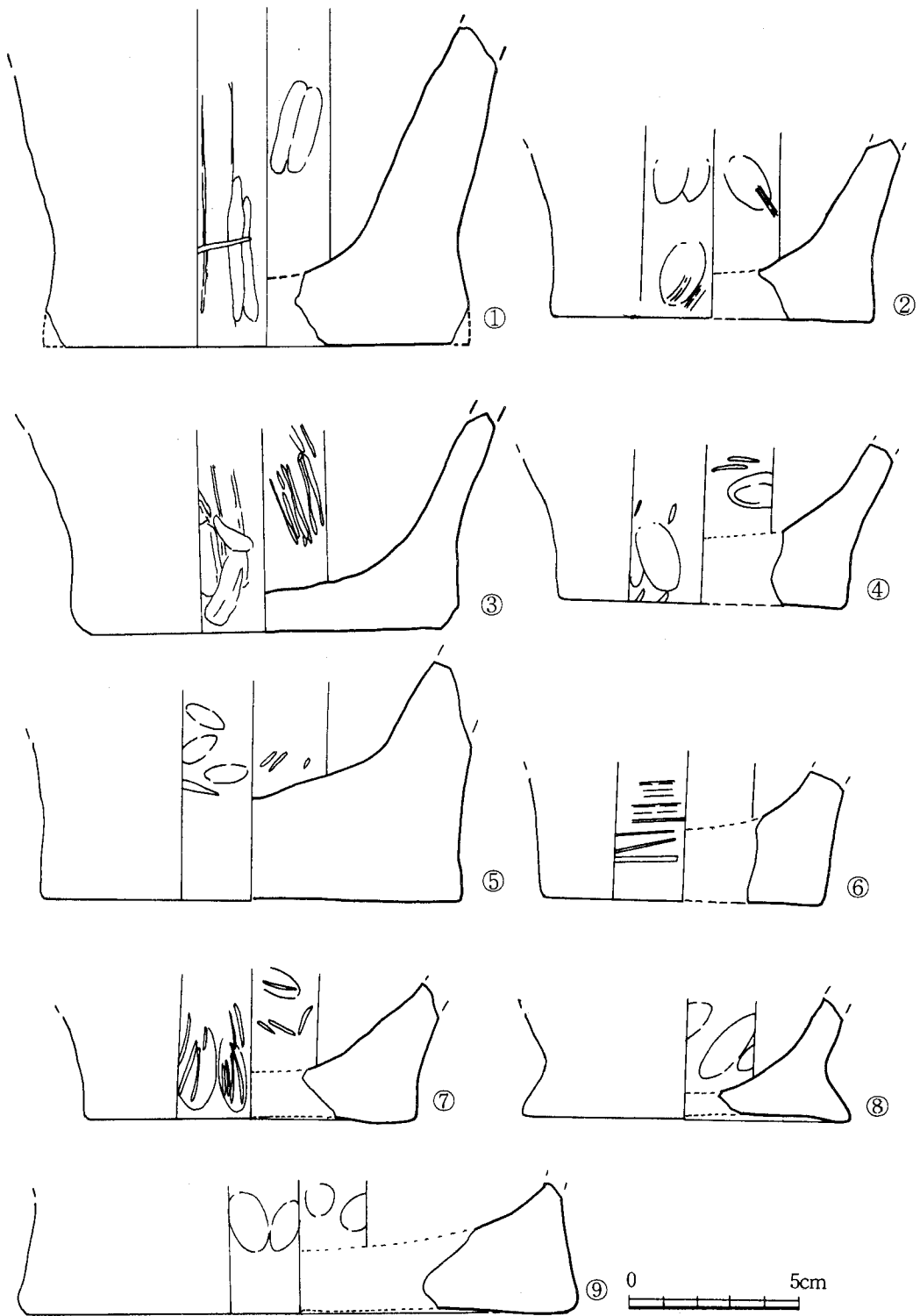


0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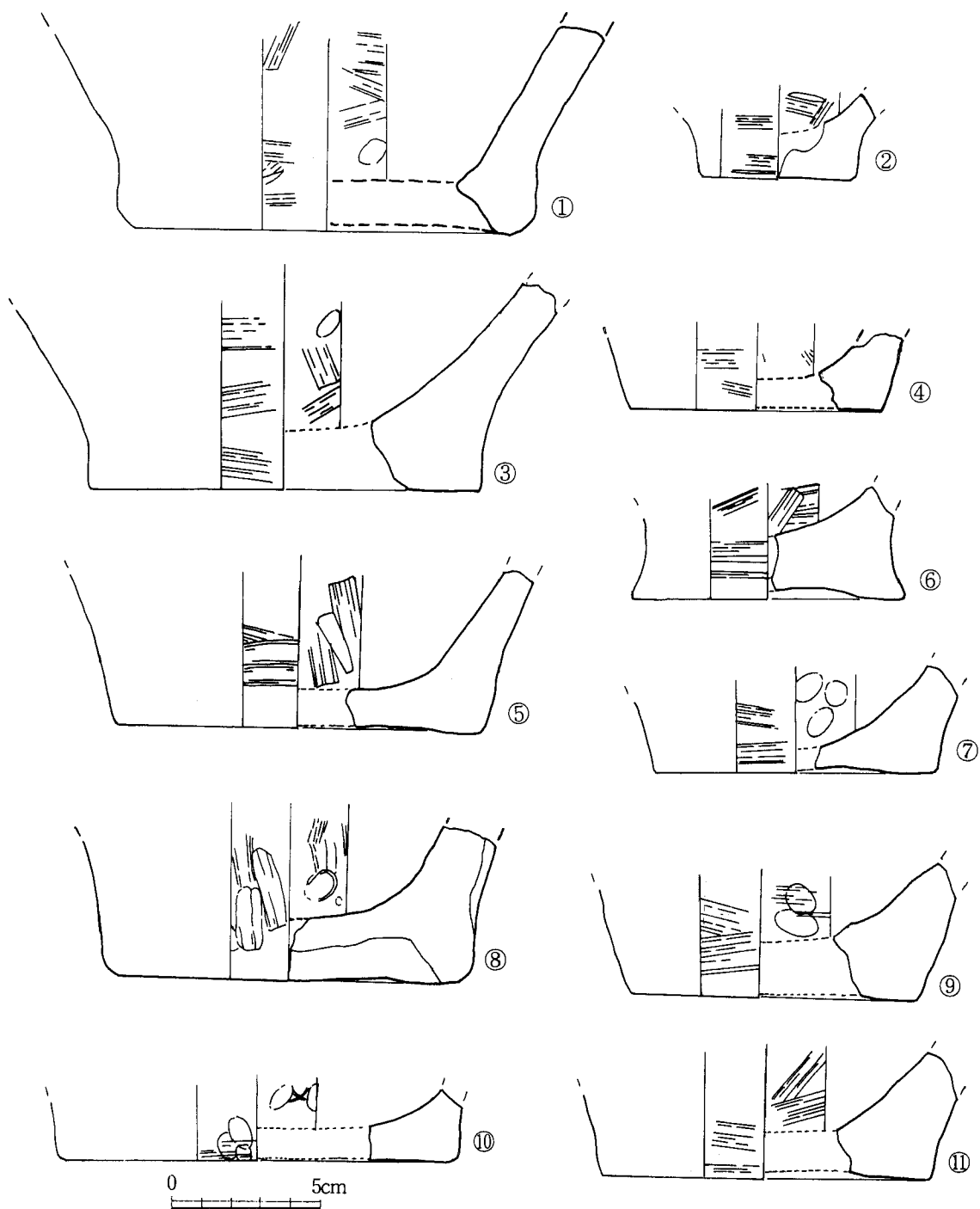
도면 12. 발굴조사 출토유물(2)



도면 13. 발굴조사 출토유물(3)



도면 14. 발굴조사 출토유물(4)



도면 15. 발굴조사 출토유물(5)

(다) 회청색경질토기(사진 26-①~②)

번 호	명 칭	길이 (cm)	두께 (cm)	속 성	도 면
1	회청색경질토기	4	0.9	회청색경질토기 동체부편이며, 겉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26-①
2	회청색경질토기	3.7	0.8	회청색경질토기이며, 겉면에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다.	26-②

(라) 석기(도면 16-①~⑤ ; 사진 26-③~⑦)

번호	명 칭	길이 (cm)	두께 (cm)	속 성	도 면	사 진
1	공 이	15.2	4.4	사용면은 양끝면이고, 일반 천석(현무암)을 이용한 것으로 폭에 비해 길이가 길다.	16-①	26-③
2	공 이	11.0	3.8	사용면은 양끝면이고, 일반 천석(현무암)을 이용한 것으로 폭에 비해 길이가 길다. 한쪽면은 파손되어 있다.	16-②	26-④
3	공 이	8.2	5.0	사용면은 양끝면이고, 일반 천석(현무암)을 이용한 것으로 폭에 비해 길이가 길다.	16-③	26-⑤
4	공 이	11.6	4.7	사용면은 한쪽면이고, 일반 천석(현무암)을 이용한 것으로 폭에 비해 길이가 길다.	16-④	26-⑥
5	공 이	5.2	4.4	비교적 넓은 돌을 이용한 것으로 한쪽끝에 일부 마모흔이 있으며, 다른 면은 반파되어 있다.	16-⑤	26-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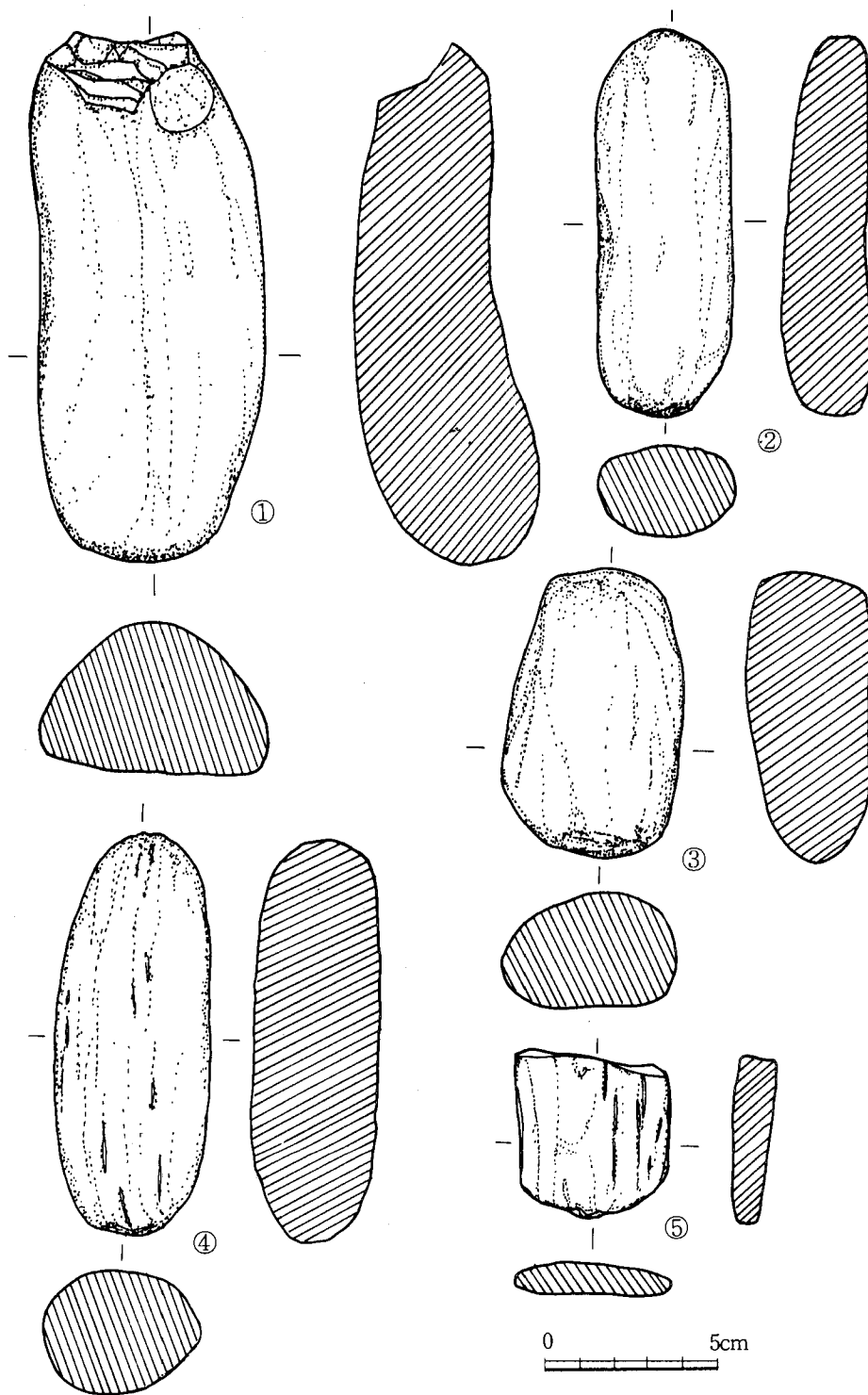
5) 고찰

가)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기유물 포함층과 적석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잡석으로 쌓아 만든 제방과 같은 시설물과 웅덩이가 확인되었다. 이 시설물은 출토되는 토기유물로 보아 탐라시대 전기(기원 0~500)에 만들어진 시설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시설물은 원상이 교란되고, 그 성격을 뚜렷하게 밝혀줄 수 있게 일정한 정형을 갖추거나 특징적인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매장문화재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설물이 있는 지점이 시설계획의 경계선상에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단애면 경계가 있는 적석시설물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질변경을 해야 한다.

다) 금번 조사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범위내에 트렌치와 테스트 핏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존할만한 중요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하수처리장 건설 시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적발굴 주변 전체면적에 대하여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물 공사가 착수되어 형질이 변경되기전에 단애면 경계부분을 중심으로 확인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1994.10.20)



도면 16. 발굴조사 출토유물(6)



① 조사지 원경(동에서)



② 조사지 원경(서에서)



③ 유구노출상태

사진 15. 발굴조사광경



① 시설물 노출상태(동에서)



② 시설물 노출상태(동에서)



③ 주변노출상태



④ 시설물 노출상태(남에서)

사진 16. 적석시설물



① Test pit(1) 과 적석시설물



② Test pit(2)와 내부 적석상태



③ 동편적석 노출상태



④ Test pit(2) 내부적석상태



⑤ 적석상태(1)



⑥ 적석상태(2)

사진 17. 적석시설물 적석상태 세부



① 구덩이 주변 유구노출상태



② 구덩이 굴광선 노출상태(동에서)



③ 구덩이 굴광선 노출상태(서에서)



④ 구덩이 세부



⑤ 구덩이 세부



⑥ 구덩이상층 층위상태

사진 18. 구덩이 노출상태



① 유물노출상태



② 유물노출상태



③ 상층부 층위상태(1)



④ 유물노출상태(1)



⑤ 상층부 층위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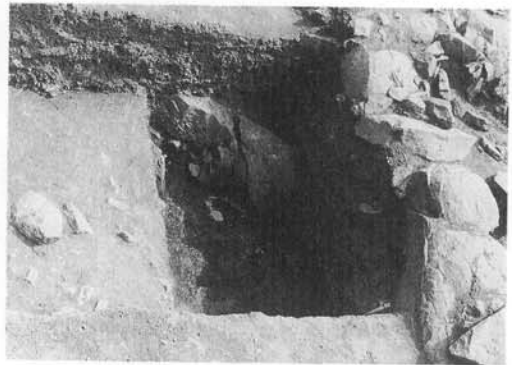


⑥ 유물노출상태(2)

사진 19. 구덩이 내부노출상태



① Test pit 조사광경



② Test pit(1)



③ Test pit(1) 층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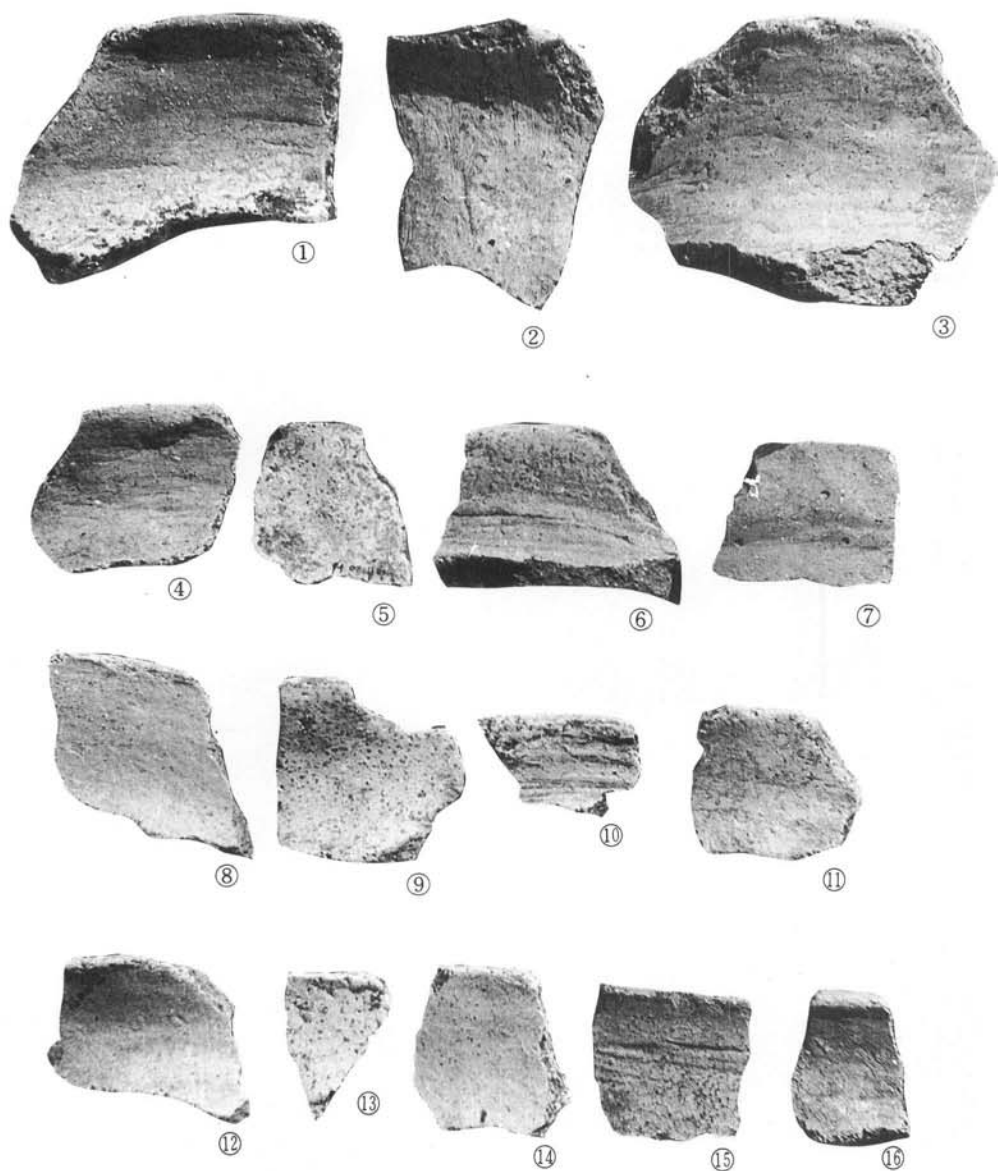


④ 남북단면 층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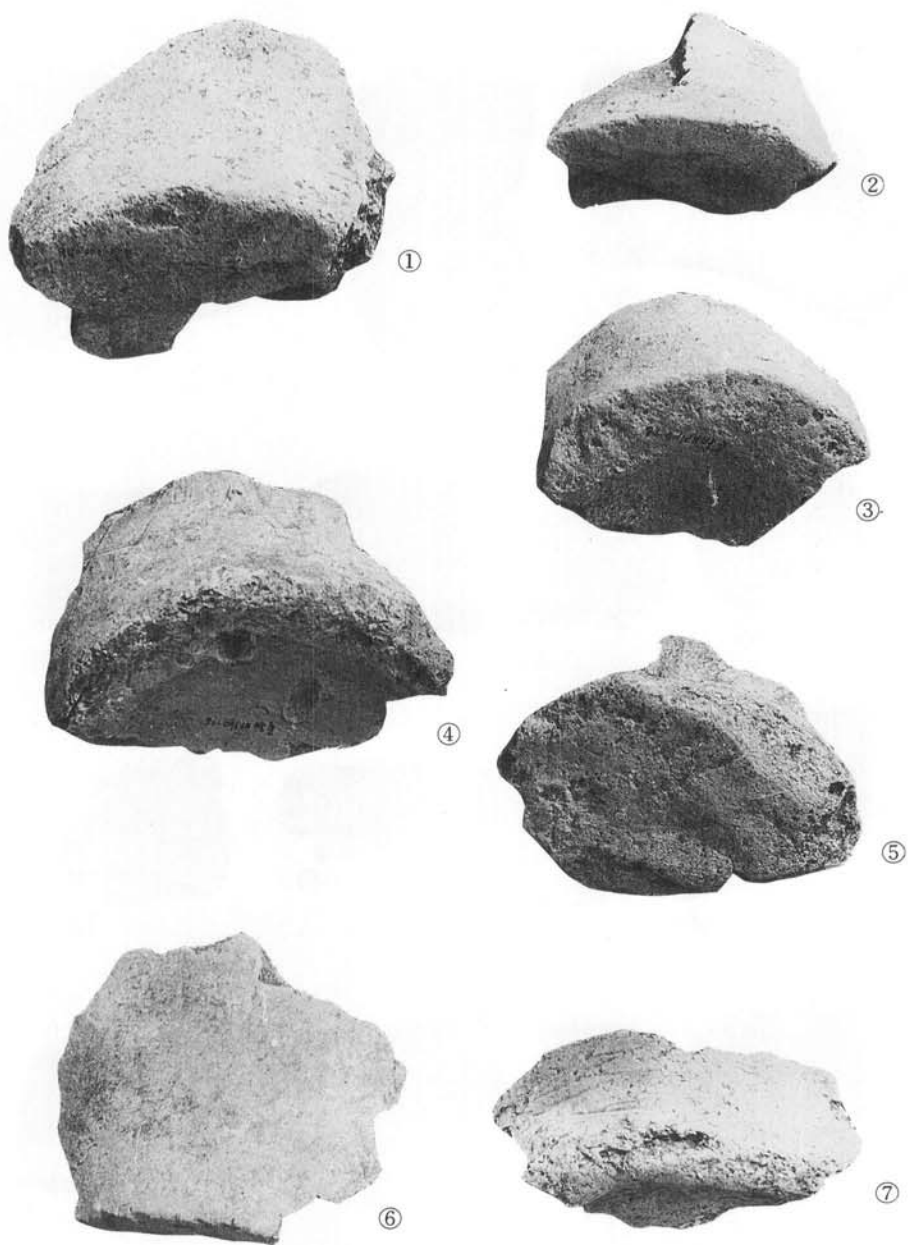
⑤ 구덩이상층 단애면전체 층위상태

사진 20. Test pit·층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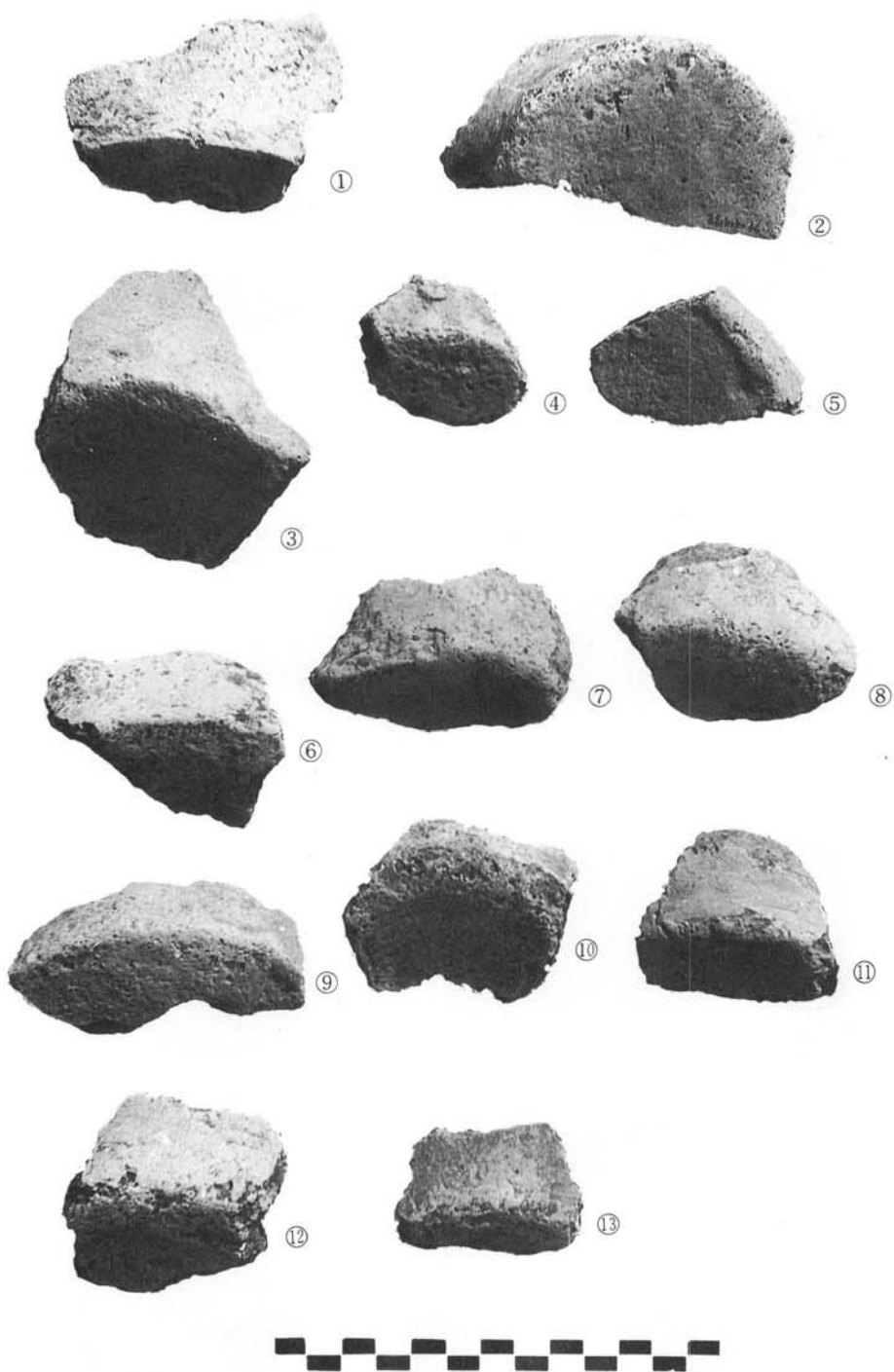
①~⑮ 구연부

사진 21. 발굴조사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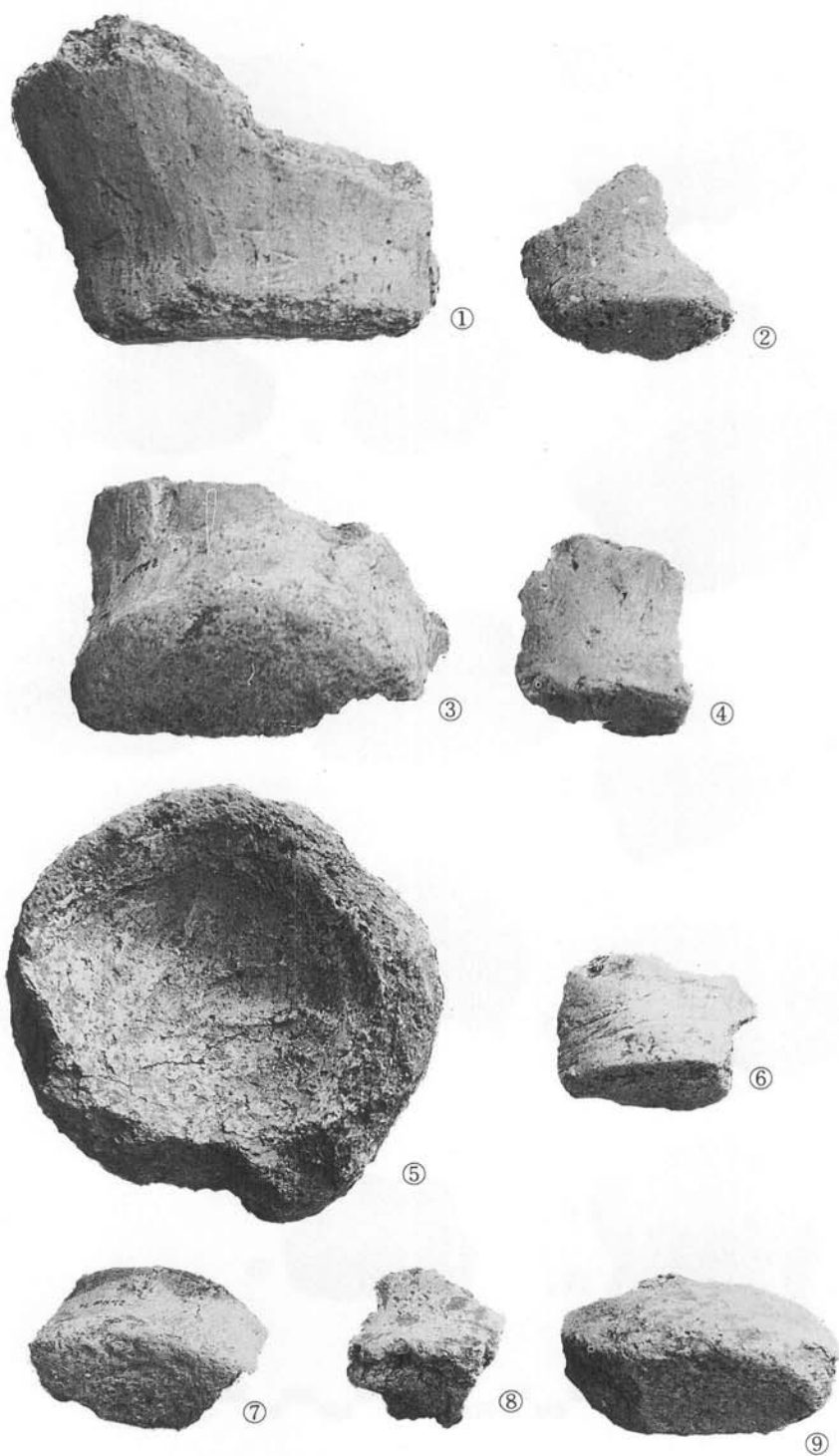
①~⑦ 저부

사진 22. 발굴조사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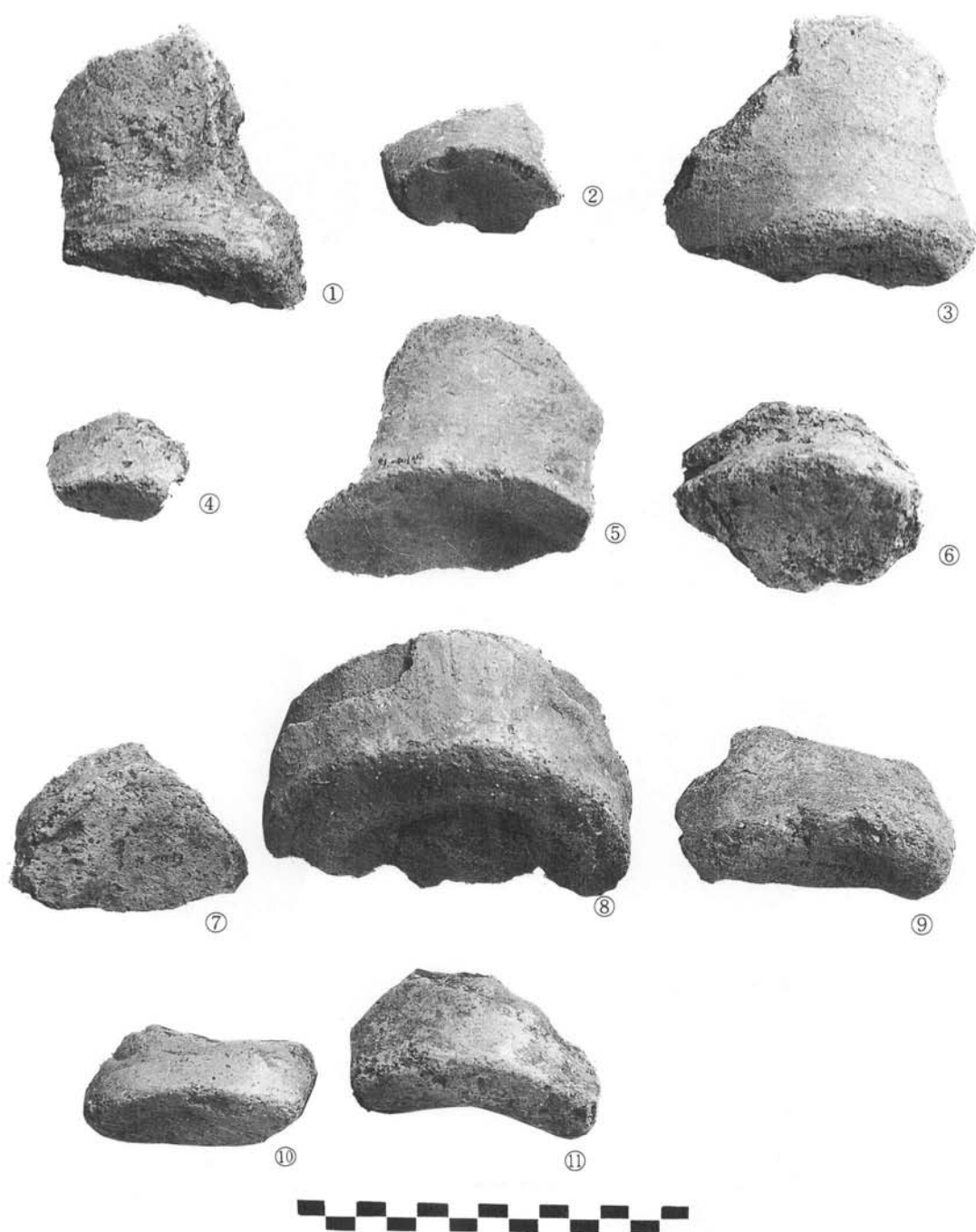
①~⑬ 저부

사진 23. 발굴조사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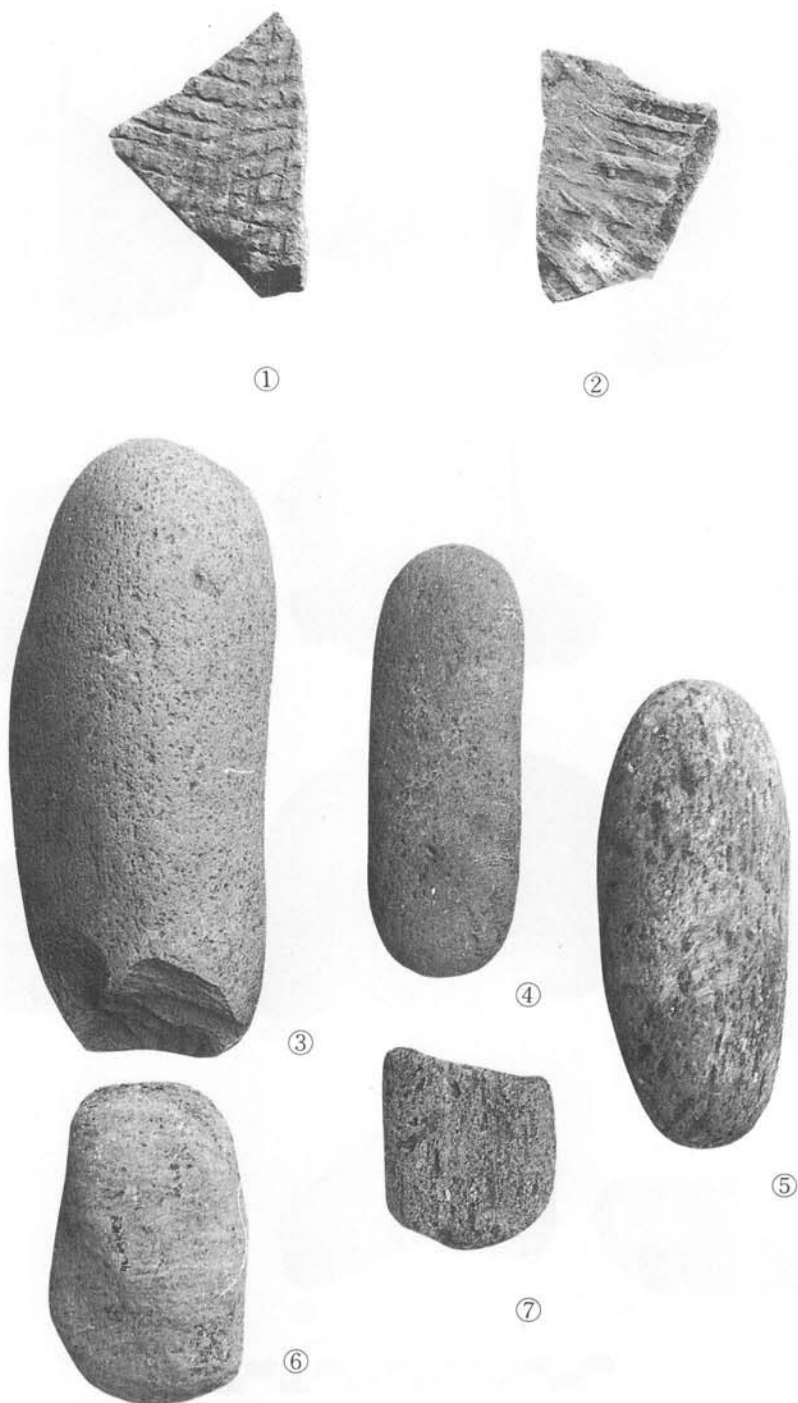
①~⑨ 저부

사진 24. 발굴조사 출토유물(4)



①~⑪ 저부

사진 25. 발굴조사 출토유물(5)



①~② 회청색경질토기 ③~⑦ 석기류

사진 26. 발굴조사 출토유물(6)

V. 맺음말

1. 이 유적은 지표조사를 통해 각기 시대를 달리하는 유물산포지 2지점과 지식묘, 바위그늘집자리, 동굴입구집자리,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금번 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실시 구역내 전범위를 대상으로 한 시굴조사를 통해 최근에 매립한 두께 1m이상의 매립층과 그 하층(바닥층, 모래층)에서 유물산포층이 파악되었다. 문화층내부에서 발견되는 토기는 모두 광지 1식 호형토기편이다. 또한 조사대상지 서편 단애면에서 일련의 적석유구 일부와 적석된 유구 부위에서 토기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적석유구에 대한 확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과 맞물려 부득이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지표·시굴조사예산 범위내에서 소규모 발굴조사를 한정적으로 긴급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소규모 발굴조사 결과, 하천과 관련된 적석렬이 노출되었고 이 적석렬은 하천의 범람시 물을 막기 위한 제방둑과 유사한 성질의 유구로 판단되어졌고 구덩이는 하천서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을 모으기 위한 담수시설로 판단된다.

2. 1985년 이래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예동유적은 기원전후한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시기적인 연속관계속에서 마을이 형성되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유물로 판단하건데, 탐라시대전기(원삼국시대 혹은 州胡時代, A.D. 0~500)에 삶의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그 지점은 현재 예래천 하류와 서편 절벽과 능선, 약간의 대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당시 주민이 사용한 토기는 광지 1식 호형토기(壺形土器)로 여겨지는데 태토는 굵은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고 그릇의 두께가 1cm 이상되는 것들이다. 이 다음 시기는 대략 탐라시대후기(A.D. 500~1105)로 편년되어지는데 주된 용기는 광지 2식 심발형토기로 전대시기의 그릇에서 발전된 토기이다. 이 토기는 저부를 따로 만들어 동체부와 접합하였으며 태토는 정선되고 미세한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고 그릇의 두께도 1cm를 넘지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토기는 예래천 하류의 서벽과 해안변의 바위그늘·동굴집자리에서 집중발견되며 유물산포지의 범위도 전대의 범위보다 축소되면서 하천하류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 시기 이후인 고려시대는 『耽羅志』建置沿革條 등에서 확인되는 충렬왕대(A.D.1300)의 15현촌중 하나인 「예래(猊來)」가 이곳 지경에 있었고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대정현 관내의 주요한 마을인 '예래현(猊來縣)'도 바로 이곳이다.



<범례>

- : 유물산포지
- : 바위그늘·동굴입구집자리
- ▲ : 고인돌

* 주변유적 분포도

3. 결국 예래동 유적의 조사와 인근 중문일대 주변의 유적분포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탐라시대 전기(A.D. 0~500)에는 동 유적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화순, 대평일대의 선사취락지와 동편으로는 강정리, 월평, 대포, 성천포 일대의 선사취락지가 자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의 뒤를 이은 탐라시대 후기에는 본 조사대상지인 상예동 마을에 국한되어 이 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분포된 집단취락지역이 확인되고 있다. 문헌상으로도 (『耽羅志』 建置沿革條, 충렬왕 26년, 1300년) 고려시대에 이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촌락으로 예래현(현, 상예동)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중문일대 유적군의 시기적 변천양상을 통해 탐라시대 전기의 다수 취락지에서 탐라시대 후기에는 집약취락지로 전개되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